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8

1. 베트남 - 안테나 29
2. 파운드리 34
3. Ex-Briefing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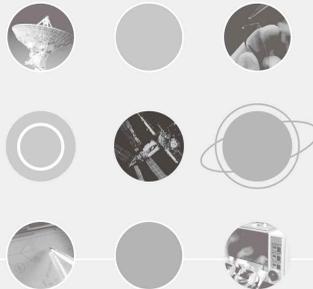
III. 부록 42

1. ICT 생산 통계 43
2. 2022년 6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4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1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9
5. ICT 부분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0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2.6월 ICT 수출은 207.0억 달러(7.3%↑), 수입은 130.5억 달러(23.3%↑) 기록

○ (수출)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207.0억 달러를 기록하며 6월 기준 최대 규모 수출 실적 달성

※ 역대 6월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2년) 207.0, (2위 '21년) 193.0, (3위 '18년) 191.2

- 품목별로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늘어난 반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한 미국, 일본, EU, 베트남 등 주요 국가 수출이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체
전세계	124.8 (11.1)	17.8 (△8.4)	8.8 (1.4)	16.9 (13.6)	8.0 (△2.0)	207.0 (7.3)
중국(홍콩)	70.9 (1.7)	7.0 (△23.2)	2.7 (22.2)	3.6 (△28.2)	0.5 (△47.8)	90.8 (△2.6)
미국	10.4 (19.7)	0.1 (△50.3)	0.8 (△62.9)	8.4 (60.4)	3.0 (13.9)	29.3 (14.4)
일본	1.2 (2.5)	0.1 (60.4)	0.1 (△36.4)	1.0 (17.6)	0.3 (7.6)	4.1 (5.6)
EU	1.9 (△19.6)	0.2 (△31.4)	3.1 (137.8)	2.0 (3.2)	2.0 (△16.4)	13.3 (17.6)
베트남	12.9 (21.7)	9.3 (2.6)	0.7 (△65.6)	0.3 (99.2)	0.7 (148.6)	28.1 (5.1)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23.3% 늘어난 13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반도체(66.9억 달러, 38.5%↑), 컴퓨터 및 주변기기(13.2억 달러, 3.5%↑), 휴대폰(5.8억 달러, 9.7%↑), 디스플레이(4.5억 달러, 32.3%↑) 등 주요 품목 수입이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43.6억 달러), 미국(21.9억 달러), 베트남(19.7억 달러), EU(7.0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76.5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분 (억 달러, %)	2022년		2021년		
	6월P	상반기P	6월	상반기	
수출	전체 산업	577.3 (5.4)	3,503.5 (15.6)	547.8 (39.7)	3,031.3 (26.0)
	ICT	207.0 (7.3)	1,225.5 (18.9)	193.0 (29.1)	1,030.3 (21.5)
수입	전체 산업	602.0 (19.4)	3,606.4 (26.2)	504.3 (40.9)	2,858.3 (24.3)
	ICT	130.5 (23.3)	743.7 (18.4)	105.8 (17.8)	628.2 (19.1)
무역수지	전체 산업	△24.7	△103.0	43.5	173.0
	ICT	76.5	481.8	87.1	402.1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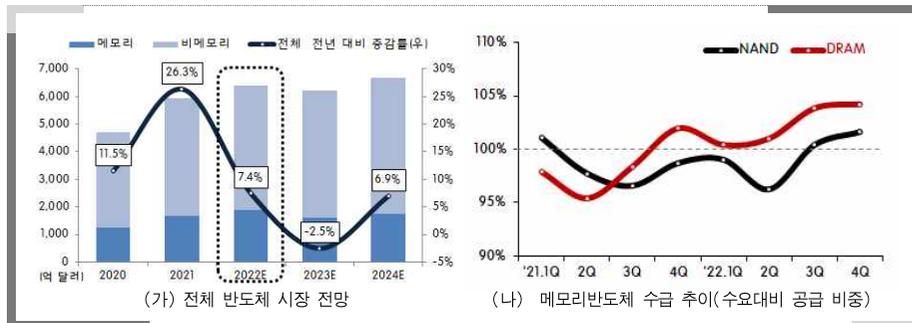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22년 반도체 시장은 3년 연속 성장세가 기대되나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시장 전망) 반도체 공급 개선 등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6,39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 수요 둔화 요인도 잔존(Gartner, '22.6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제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7%대의 성장률로 3년 연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축 및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하면서 전방 산업 수요가 둔화돼 성장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2.3월 전망치 기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6,760억 달러로 예측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PC, 스마트폰용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22.6월 전망치는 하향 조정
 - (메모리 반도체 : 1,899억 달러, 14.5%↑) PC, 스마트폰 등 소비자 가전 수요는 둔화되나 데이터 센터 등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다만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가 예상되면서 기존 전망(2,122억 달러, 28.0%↑) 대비 하향 조정
 - ※ D램 수급은 '21.4분기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급초과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22.하반기 이후 심화될 전망이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공급부족이 지속되나 '22.3분기 이후 수급은 반전될 것으로 예상(Gartner, '22.6월)
 - (비메모리 반도체 : 4,493억 달러, 4.7%↑) 공급 부족이 개선되는 상황 속에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량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PC, 스마트폰 등 ICT 제품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 '19년 감소세 이후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그림 1-1 전체 반도체 시장 및 메모리반도체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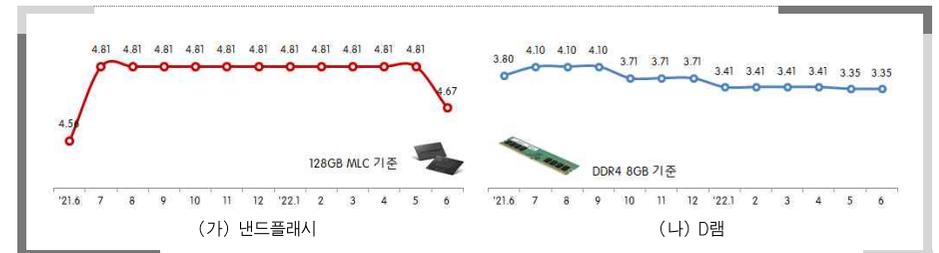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6.

□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향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2.6월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수요 감소 우려에 따른 세트업체의 재고 수준 증가 등으로 낸드플래시가 하락했으며 D램이 '22.5월 하락에 이은 보합세를 기록(Dramexchange, '22.6월)
 - (낸드플래시) '22.6월 메모리카드:USB용 범용제품(128GB MLC) 고정거래가격은 4.67달러를 기록해 전월(4.81달러) 대비 3.01% 하락.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 둔화 등 PC·노트북·스마트폰 등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20.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의 고정거래가격은 '22.6월 3.35달러로 보합세를 기록. 다만 '21.9월 4.10달러로 고점을 달성한 이후 전방 수요가 둔화되면서 '21.10월 3.71달러(전월 대비 △9.51%) → '22.1월 3.41달러(△8.09%) → 5월 3.35달러(△1.76%)로 하락 추세를 지속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2.6.

-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및 인플레이션 등을 배경으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ICT기기 수요 감소의 영향이 확대되며 기존 대비 하락폭이 확대 조정(TrendForce 재인용, '22.7월)
 - (낸드플래시) '22.2분기 이후 노트북·TV·스마트폰 등 시장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정 고도화로 인한 시장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3분기 가격 예상치를 기준 전분기 대비 3~8% 하락 → 8~13% 하락으로 하향 수정. 가격 하락세는 4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 특히 3D 낸드플래시 웨이퍼 가격 하락폭이 15~20%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D램) 하반기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부 D램 공급업체의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인하 조치 등으로 3분기 가격 예상치는 기준 전분기 대비 3~8% 하락 → 10% 하락으로 하향 조정
 - ※ 특히 모바일 및 소비자용 D램 가격 하락폭이 8~13%로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견조한 수요를 이어 온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글로벌 경기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시기 지연 및 규모 축소 등으로 타격이 우려

- 다만 '22.7.8일 마이크론의 일본 히로시마 공장이 기상 악화에 따른 장시간 정전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후 생산 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가동을 재개했으나 종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D램 공급량 감소로 가격 하락세는 완화될 전망

※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은 월 11만 5,000장 규모로 이는 마이크론 전체 월 생산량의 32%,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의 7.2% 수준

표 1-3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전망 추이

품목	'22.6월 전망	'22.7월 전망	품목	'22.6월 전망	'22.7월 전망
PC용 D램	3~8% 하락	5~10% 하락	eMMC, UFS	3~8% 하락	8~13% 하락
서버용 D램	0~5% 하락	5~10% 하락	기업용 SSD	0~5% 하락	5~10% 하락
모바일용 D램	3~8% 하락	8~13% 하락	소비자용 SSD	3~8% 하락	8~13% 하락
그래픽용 D램	0~5% 하락	3~8% 하락	3D 낸드 웨이퍼 (TCL & QLC)	5~10% 하락	15~20% 하락
소비자용 D램	3~8% 하락	8~13% 하락	전체 낸드플래시	3~8% 하락	8~13% 하락
전체 D램	3~8% 하락	약 10% 하락			

(가) D램 (나) 낸드플래시

자료 : TrendForce, 2022.7.

□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업체의 설비 투자가 축소

○ 가격 하락 예상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적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축소하는 등 공급 조절에 돌입

-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 단지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이었던 신규 반도체 공장(M17) 착공을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 확대로 보류하기로 결정('22.6.29일)

※ 다만 환율과 물가 상승 등 문제가 개선될 경우 투자 계획을 재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23년 자본지출을 올해 대비 약 25% 낮춘 16조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설비 투자 계획 조정에 관한 전망도 보도(블룸버그통신)

-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22.6.30일 3분기 매출 전망치를 72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며, 공급 과잉 발생에 대비해 신규 공장 및 설비 투자 축소를 고려하는 등 공급량을 조절할 전망

- TSMC는 '22.2분기 실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장비 리드타임(제품 주문부터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 증가와 재고 상황을 고려해 시설 투자 예산을 기존 400억~44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며, 생산 설비 신설 계획 일부를 변경

※ TSMC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대만 공장에 3nm 설비 대신 5nm 시설을 우선 배치하기로 결정

-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도 5년간 반도체(약 300조 원) 등 미래 사업에 450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상황에 따라 해당 투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 성장으로 '22.6월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품목별) 글로벌 수요 증가 등으로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가 호조세를 지속하며 '22.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한 124.8억 달러로 24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메모리 반도체 : 77.9억 달러, 3.2%↑) 메모리 MCP 등은 감소했으나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면서 D램,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낸드플래시 등이 늘어나 22개월 연속 호조세를 달성

- (시스템 반도체 : 41.8억 달러, 33.3%↑) 파운드리 등을 중심으로 선전하며 26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

- 중국(홍콩 포함, 70.9억 달러, 1.7%↑)은 낸드플래시·MCOs·D램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MCP 급감으로 전체 메모리 반도체(△3.0%)가 감소했으나 시스템 반도체(20.2%↑)가 증가하며 22개월 연속 성장세 달성

- 베트남(12.9억 달러, 21.7%↑)은 시스템 반도체(35.5%↑)와 더불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22.2%↑)가 동반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

표 1-4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상반기
반도체	110.3 (38.6)	117.6 (41.8)	122.3 (27.4)	112.3 (28.4)	120.9 (39.5)	128.4 (34.5)	108.9 (24.1)	104.5 (23.8)	132.0 (37.9)	109.0 (16.0)	116.1 (14.9)	124.8 (11.1)	695.2 (20.9)
메모리	71.4 (43.8)	76.4 (50.6)	79.5 (28.6)	69.5 (28.1)	76.4 (47.3)	84.1 (40.3)	64.8 (21.9)	63.3 (21.3)	82.0 (34.0)	63.8 (7.7)	72.8 (10.8)	77.9 (3.2)	424.6 (15.7)
D램	35.2 (39.8)	37.6 (55.1)	37.8 (28.7)	35.6 (41.1)	37.1 (56.1)	41.3 (64.6)	32.0 (34.3)	31.8 (40.1)	38.9 (44.3)	32.4 (12.9)	37.1 (27.9)	38.8 (14.9)	210.9 (27.9)
낸드	4.9 (0.5)	5.7 (12.5)	6.6 (13.0)	6.3 (25.5)	6.2 (24.0)	6.4 (△5.8)	5.2 (6.8)	6.3 (36.9)	7.5 (68.8)	7.4 (51.0)	8.0 (36.8)	7.9 (32.0)	42.3 (38.0)
메모리 MCP	27.1 (72.2)	28.2 (58.9)	30.3 (34.3)	23.5 (19.8)	30.2 (57.6)	31.3 (31.3)	24.1 (16.4)	21.1 (△1.5)	30.5 (19.9)	19.8 (△9.9)	24.1 (△11.9)	25.1 (△21.9)	144.6 (△2.9)
메모리 MCOs	4.0 (8.4)	4.7 (32.9)	4.7 (19.4)	3.9 (△7.3)	2.8 (△26.9)	4.9 (21.9)	3.4 (△6.4)	4.0 (20.3)	5.1 (19.1)	4.1 (15.3)	3.5 (3.4)	6.1 (72.5)	26.1 (20.6)
시스템 반도체	33.4 (35.8)	35.6 (31.2)	37.5 (31.7)	37.3 (32.3)	39.0 (31.1)	38.9 (30.1)	38.7 (33.0)	36.1 (33.9)	44.5 (53.5)	40.1 (36.5)	38.3 (26.8)	41.8 (33.3)	239.4 (36.1)
개별 소자	1.6 (13.7)	1.5 (19.5)	1.5 (2.4)	1.5 (4.1)	1.5 (△4.0)	1.5 (△1.3)	1.4 (△4.0)	1.4 (0.2)	1.6 (2.9)	1.5 (△3.6)	1.5 (3.7)	1.4 (△5.4)	8.7 (△1.1)
광전 소자	2.5 (△11.9)	2.6 (△2.4)	2.4 (△19.5)	2.5 (3.9)	2.5 (5.4)	2.5 (△14.7)	2.4 (△13.4)	2.0 (△23.1)	2.0 (△24.6)	2.0 (△20.7)	1.8 (△27.5)	2.1 (△22.6)	12.3 (△21.9)

자료 : IITP, KTSP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02.5	25.9	39.0	중국	49.9	13.3	40.0	279.0	27.3	40.1	
2	홍콩	265.9	28.2	20.7	홍콩	21.0	-18.2	16.8	109.6	-13.4	15.8	
3	베트남	140.3	21.9	10.9	베트남	12.9	21.7	10.3	82.5	37.4	11.9	
4	대만	107.0	67.9	8.3	대만	11.6	29.3	9.3	65.6	37.6	9.4	
5	미국	95.2	18.0	7.4	미국	10.4	19.7	8.4	50.3	18.7	7.2	
6	싱가포르	38.3	48.5	3.0	싱가포르	5.4	72.7	4.3	28.3	62.6	4.1	
7	필리핀	38.0	31.0	2.9	필리핀	4.5	58.8	3.6	21.7	39.3	3.1	
8	말레이시아	16.5	22.7	1.3	말레이시아	1.7	28.4	1.3	9.1	25.1	1.3	
9	일본	13.9	28.9	1.1	인도	1.4	49.7	1.1	11.7	95.1	1.7	
10	인도	12.6	18.0	1.0	일본	1.2	2.5	1.0	7.3	12.7	1.0	

자료 : IITP, KTSPi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올해 전방 수요 감소 등으로 LCD → OLED 패널로의 생태계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시장 전망) '22.하반기 LCD 패널과 OLED 패널 시장은 상반된 흐름을 보일 전망
 - (LCD 패널) '22.4월 대형 LCD 패널 시장(7,410만 대, △5%)은 TV 수요 감소, 패널 가격 하락 지속 등으로 큰 폭 감소 6월에도 국내 업체의 LCD 생산 전면 철수 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대형 LCD 패널 시장은 하락 전망(OMDIA, '22.6월)
 - 게다가 글로벌 패널 업체들은 고정 생산 비용 및 재고 축소를 위해 공장 가동률('22.3분기 업계 평균 가동률은 73%로 예상)을 큰 폭으로 낮추고 있어 하반기 시장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 한편 일각에서는 하반기의 계절적 수요 증가, 가동률 하락에 따른 재고 축소 등이 맞물릴 경우 3분기에 LCD 패널 가격이 소폭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참고) 삼성전자의 TV 생산 감축 행보에 따라 中 패널 업체들도 생산량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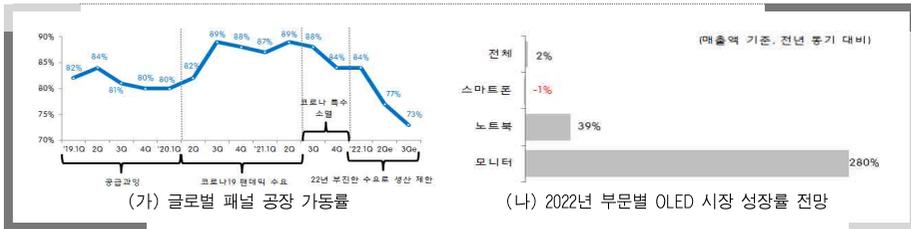
- 글로벌 TV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TV 출하량을 4,500만 대→4,200만 대로 하향 조정. 관련 부품 구매도 7월 말까지 일시 중단할 것이라 발표
- 이어 LCD TV용 패널 주문도 축소할 것이라 밝혀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인 BOE, CSOT 등은 하반기 생산량을 각각 25%, 20%(상반기 대비)씩 감산하며 피해 축소에 집중할 방침
 - * CSOT('22.3월 기준)의 경우 LCD 패널 생산 물량의 50%는 모회사인 TCL에, 25%는 삼성전자에 공급

- (OLED 패널) LCD와 달리 TV 이외에도 스마트폰, XR 기기, 모니터, 차량용 계기판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신성장요소가 확대되고 있는 OLED 시장은 올해(420억 달러, 2%↑) 전반적인 시장 둔화 속에서도 성장 전망(DSCC, '22.7월)

○ (TV) '22년 TV 시장(2억 879만 대, △2.2%)은 소비자 구매력 하락 등으로 감소 전망

- 코로나19 특수 소멸, 라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向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 TV 출하량은 당초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며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연합뉴스, 6.27일, 원소스 OMDIA)
 - * 지난 3월 OMDIA는 '22년 TV 시장을 2억 1,163.9만 대 규모로 전망하며 '10년(2억 1,000만 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
- 이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은 하반기 QLED-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한층 더 강화해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할 방침

그림 1-4 글로벌 패널 공장 가동률 및 2022년 부문별 OLED 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 OMDIA, 2022.7. / 매일경제, 7.13.(원소스 DSCC)

□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글로벌 패널 업체 간 수주 확보 및 기술 경쟁이 치열

- 애플은 ‘아이폰14(’22.9월 출시)’용 OLED 패널 공급 업체로 SDC·LGD·BOE를 선정
 - 애플 아이폰용 패널 공급은 국내 업체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년 BOE가 아이폰12용 물량 일부를 담당하며 침투하기 시작
 -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14’ 시리즈에는 OLED 패널 9,000만 대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삼성디스플레이가 6,000만 대, LG디스플레이 2,500만 대, BOE 500만 대의 물량을 담당할 예정

표 1-6 애플 아이폰 신제품용 패널 공급 업체

아이폰14 모델명	크기	패널 분류	공급 업체
기본	6.1인치	LTPS OLED	BOE, LG디스플레이
맥스	6.7인치		삼성디스플레이
프로	6.1인치	LTPO OLED	삼성디스플레이
프로맥스	6.7인치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TV 시장 전망 악화로 패널 업체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 메타버스 기기 수요에 눈길
 - 최근 TV·모니터의 대체제로 VR·AR 기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메타, 애플, 소니가 메타버스 기기 신제품 출시('22년 이내)를 예고 미니 LED, 마이크로 OLED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 탑재가 활발해질 전망
 - ※ 애플은 첫 HMD용 OLED 패널 공급 업체로 소니(마이크로 OLED), LG디스플레이(일반 OLED)를 선정
 - 한편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SDC)와 LG디스플레이(LGD)에 ‘마이크로 OLED’ 개발을 요청('21.9월). 이에 LGD는 '22.6월 마이크로 OLED용 증착기를 발주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며 애플용 수주 확보에 총력
 - ※ 마이크로 OLED는 메타버스 기기 특성에 맞게 개선한 중소형 패널로 기존 OLED의 유리 기판 대신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물질을 증착하여 제조. 이에 따라 패널도 얇고 초고해상도 화면 구현 등이 가능해 VR, AR 기기용 핵심 디스플레이로 주목

2) 수출 동향

□ '22.6월 패널 수출은 대내외적인 악조건 등으로 8.4% 감소한 17.8억 달러 기록

- (품목별) OLED 패널을 비롯한 전 품목 수출이 반락하며 22개월 만에 하락 진입
 - (LCD 패널 : 4.3억 달러, △9.0%) LCD 패널 가격의 하락, 국내 업체의 LCD 패널 생산량 감소 및 전면 중단 등의 행보로 6개월 만에 역성장 기록
 - (OLED 패널 : 10.9억 달러, △2.4%) 세계 경기 침체, 중국 봉쇄 조치 여파 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올해 목표 출하량을 한 차례 하향 조정함에 따라 OLED 패널 수요가 소폭 감소
 - (부분품 : 2.6억 달러, △26.3%) 편광판(1.8억 달러, △29.8%), BLU(△64.5%) 등의 수출 감소로 9개월 만에 큰 폭 하락 전환
- (지역별)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의 수출은 상승했으나 중국·미국 등은 감소
 - 베트남(9.3억 달러, 2.6%↑)은 LCD 패널(0.4억 달러, △37.0%), 부분품(0.3억 달러, △48.9%)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OLED 패널(8.7억 달러, 9.2%↑) 수요 견조세로 1위를 재탈환
 - 중국(홍콩 포함, 7.0억 달러, △23.2%)은 LCD 패널(3.1억 달러, △16.7%), OLED 패널(2.0억 달러, △36.1%), 부분품(1.9억 달러, △16.0%) 수출 모두 2개월 연속 감소하며 하락
 - 멕시코(0.6억 달러, 166.1%↑)는 부분품 수출(0.1억 달러, △39.0%)이 반락했으나 LCD 패널(0.5억 달러, 1,009.7%↑), OLED 패널(633.5%↑) 수출 등이 매우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성장 지속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상반기
패널	20.9 (34.8)	22.1 (22.4)	24.4 (15.7)	22.4 (5.8)	24.3 (11.3)	24.7 (3.1)	23.5 (13.3)	22.5 (39.3)	24.5 (45.3)	20.5 (22.5)	18.2 (2.4)	17.8 (△8.4)	127.1 (17.9)
LCD	5.2 (△5.4)	4.8 (△7.1)	4.9 (△11.3)	5.1 (△3.7)	5.5 (2.3)	5.6 (△8.3)	5.4 (1.8)	5.2 (15.8)	6.1 (24.2)	5.2 (5.2)	4.9 (3.0)	4.3 (△9.0)	31.2 (6.8)
OLED	12.2 (89.6)	14.0 (47.3)	16.2 (33.1)	13.9 (8.7)	15.3 (14.0)	15.3 (6.2)	14.0 (14.4)	13.1 (56.3)	14.2 (69.0)	11.7 (38.8)	9.9 (2.1)	10.9 (△2.4)	73.8 (26.5)
부분품	3.6 (△1.4)	3.3 (△2.2)	3.3 (△2.9)	3.3 (10.0)	3.5 (15.7)	3.7 (10.6)	4.1 (28.0)	4.2 (27.9)	4.2 (18.1)	3.6 (6.7)	3.4 (2.4)	2.6 (△26.3)	22.1 (9.0)

자료 : IITP, KTSP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5.3	23.8	50.8	베트남	9.3	2.6	52.2	62.1	27.8	48.9			
2	중국	102.1	15.4	41.4	중국	6.8	-23.4	37.9	51.5	2.6	40.5			
3	홍콩	5.1	31.9	2.1	멕시코	0.6	166.1	3.4	3.0	168.3	2.3			
4	멕시코	2.6	26.7	1.0	홍콩	0.3	-15.9	1.4	2.8	34.3	2.2			
5	미국	2.2	0.6	0.9	인도	0.2	57.4	0.9	1.4	124.4	1.1			
6	인도	1.1	50.4	0.5	일본	0.1	60.4	0.7	0.8	102.3	0.6			
7	일본	1.0	-22.7	0.4	미국	0.1	-50.3	0.6	1.0	-19.2	0.8			
8	헝가리	0.8	42.1	0.3	헝가리	0.1	-8.0	0.5	1.2	227.9	0.9			
9	대만	0.6	-7.8	0.3	말레이시아	0.1	73.9	0.3	0.4	123.7	0.3			
10	폴란드	0.6	-15.6	0.2	대만	0.1	17.8	0.3	0.3	11.2	0.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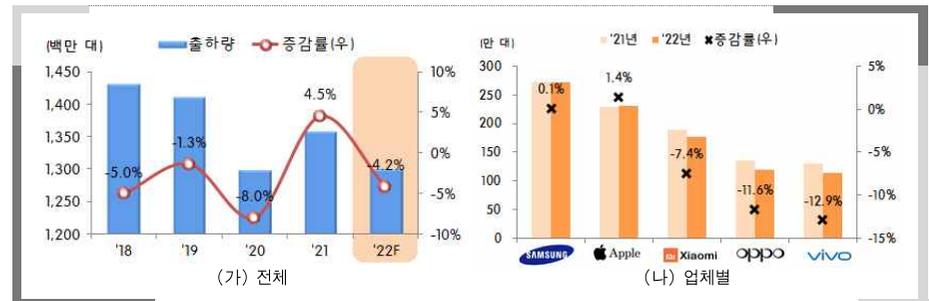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22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선두 업체는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전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수요가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4.2% 줄어든 13억 14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SA, '22.6월)
 -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요국 인플레이션 발생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며 연간 글로벌 출하량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분기별로는 '22.1~2분기 지정학적인 이슈로 아시아/태평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부진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나 3분기 이후 중국 시장 회복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 다만 북미·서유럽 등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는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
 - * 분기별 스마트폰 시장 증감률(전년 대비, % SA, '22.6월) : ('22.1Q) -10.9 → (2Q(F)) -7.8 → (3Q(F)) 0.3 → (4Q(F)) 1.3
- (업체별) 글로벌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애플 등 선두 기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부진이 예상되며 격차가 확대될 전망(SA, '22.6월)
 - 삼성전자는 전방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전년도 출하량 수준을 유지하며 2년 연속 점유율 20%대로 시장 1위를 수성할 것으로 예상
 - 애플도 중국 주요 도시 봉쇄의 영향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세가 제한되나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면서 1%대의 증가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샤오미(△7.4%)·오폴(△11.6%)·비보(△12.9%) 등 중국 업체들은 현지 시장 수요 위축과 더불어 증세가 중심의 제품 라인업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

그림 1-6 전체 및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 SA, 2022.6.

□ 스마트폰 시장 위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품 감산에 따른 부분품 수요 둔화도 우려

- '22.5월 스마트폰 판매량 1억 대 하회, 중국 '618 축제' 기간 내 제품 판매 수 감소 등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시장 축소 등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22.5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9,600만 대로 1억 대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요 감소 요인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2.7월)
 - ※ 다만 하반기에는 주요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및 개학 연말 특수까지 이어지는 등 경기 정상화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 반등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
 - 한편 중국 최대 쇼핑 행사 중 하나인 '618 축제' 기간('22.5.31일-6.18일) 내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수가 현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는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2.7월)
 - ※ 이번 '618 축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시점에 개최되면서 해당 축제의 성과가 현지 소비심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
 - 특히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징둥닷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등 온라인 판매는 선진했으나 오프라인 유통의 감소가 전체 스마트폰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해당 기간 동안 비보·오포·샤오미·애플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아너의 점유율은 '21년 7.0% → '22년 19.1%로 유일하게 증가
 - ※ 중국 '618 축제' 기간 내 주요 업체별 점유율 변화('21년 → '22년, %) : (아너) 7.0 → 19.1, (비보) 22.6 → 19.0, (오포) 22.1 → 18.1, (샤오미) 19.3 → 16.7, (애플) 13.9 → 13.7, (샤오미) 9.9 → 6.6
- 스마트폰 수요 부진의 여파로 출하량을 감산 조정하면서 관련 부품 시장도 축소가 우려
 -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하면서 일부 부품 주문을 중단하거나 축소. 베트남 등 스마트폰 생산 거점 공장의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공급망 재정비를 진행했으며,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도 3억 3,000만 대 이상에서 2억 8,000만 대 수준으로 감산 조정
 - 애플도 올해 아이폰 생산 출하량을 당초 목표치인 2억 4,000만 대 대비 약 10% 감축한 2억 2,000만 대로 조정. 또한 '22.6월 출시한 '아이폰SE 3세대'의 생산량도 초기 생산 물량 대비 20%(200~300만 대) 감산을 결정
 - 샤오미는 기존 2억 대에서 1억 6,000만~1억 8,000만 대, 비보, 오포도 '22.2-3분기 부품 주문량을 기존 대비 약 20% 줄이기로 결정하는 등 중화권 업체들도 연이어 생산을 축소
 - 주요 업체의 스마트폰 감산 조치로 카메라모듈,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반도체 기판 및 인쇄 회로기판 등 기기에 탑재되는 관련 부품 수요 감소가 예상
 -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AP에 사용되는 플립칩칩스케일 패키지(FC-CSP)와 시스템인 패키지(SiP) 등 기판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

□ '22.8월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주요 업체의 하반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삼성전자) '22.8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폴더블폰 출시로 하반기 시장을 공략
 - 삼성전자는 '22.8.10일 미국 뉴욕에서 신규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4'·'갤럭시Z 플립4' 등 하반기 신작 공개 행사 개최, 8.26일부터 공식 출시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시작한다는 계획
 - 이번 4세대 폴더블폰은 퀄컴의 스냅드래곤8+ 1세대 AP,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및 3배 광학줌 지원 1천만 화소 망원카메라, eSIM 기능 등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 또한 힌지 주름 개선, 안정적인 화면비(외부 24.5:9~23:9, 내부 5.4~6:5), 배터리 용량 확대 등 전작 단점이 개선될 전망
 - ※ eSIM(eSIM)은 기존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정보를 담는 SW 모듈. eSIM 기능이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1대로 2개 유심(유심·eSIM) 및 2개 번호를 쓰는 '듀얼 심'이 가능
 -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는 전작(갤럭시Z 폴드3, 199만 8,700원) 대비 인하될 것으로 전망. 확대가 예상되는 폴더블폰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 (애플) '22.9월 성능 개선 및 라인업간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아이폰14' 시리즈를 출시하며 하반기 시장 경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수요 감소에 대비하며 긴축 경영에 돌입
 - '22.9월 프로맥스·프로·맥스·일반형 등 4가지 모델의 하반기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
 - 이번 시리즈에는 전작대비 개선된 카메라(아이폰13 1200만 화소→ 아이폰14 4800만 화소)와 올웨이즈온 디스플레이(AOD)를 지원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등의 탑재가 전망되는 가운데 표준·고급 모델간 성능 차별화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
 - ※ 일반 모델 및 맥스는 기존 AP인 'A15 바이오닉', 프로·프로맥스에는 신형 AP인 'A16 바이오닉'이 탑재되며 프로·프로맥스 모델에만 기존 M자형 노치 디자인 대신 '홀 펀치'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
 - 신제품 성능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품 가격 인상 등 아이폰14 프로 모델의 가격이 100달러(약 13만 원)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가격 면에서의 우려도 확대
 - 한편 애플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23년 일부 사업부문의 연구개발과 채용 예산을 감축할 계획. 특히 인원은 매년 약 5~10% 확충했으나 내년에는 일부 부서의 인원을 동결기로 결정
- (중국 업체) 폴더블폰 출시와 더불어 신형 시장 내 생산 설비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
 - (화웨이) '22.8월 아웃폴딩 방식의 '메이트Xs 2' 후속 모델, 클램셀형의 'P50 포켓' 파생형 모델 등 폴더블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의 하반기 신제품과 유사한 라인업으로 중국 시장을 수성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나 미국 제재의 영향으로 4G 버전으로 출시돼 수요는 제한적일 전망
 - (샤오미) '22.7월 베트남 타이응우옌에 약 8,000만 달러를 투입해 공장부지 약 20만㎡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베트남 내수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수출할 계획
 - ※ 샤오미는 중국·인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했으나 이번 베트남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현지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추격할 것으로 전망

2) 수출 동향

□ 완제품 및 부품품이 동반 증가하며 '22.6월 휴대폰 수출은 4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품목별)** '22.6월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의 성장 반전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 달성

- (휴대폰 완제품 : 4.6억 달러, 18.3% ↑) 스마트폰 수요 감소 우려 속에도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갤럭시Z 폴드4, 갤럭시Z 플립4 등 '22.8.26일 출시) 물량과 일부 해외 생산 라인의 국내 이전에 따른 생산 증가 등으로 수출은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휴대폰 부품품 : 4.2억 달러, △12.4%) 3D 센싱 모듈 등은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스마트폰 수요 우려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감산 등으로 카메라 모듈, PCB 등이 감소하며 하락세로 반전

※ 주요 생산 거점별 부품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2.6억 달러, 30.2% ↑), 베트남(0.7억 달러, △66.0%, 인도(0.1억 달러, 147.0% ↑)

○ **(지역별)** 미국·베트남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EU 등은 성장세를 유지

- EU(3.1억 달러, 137.8% ↑)는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으로 완제품(169.8% ↑) 수출이 급등하며 3개월 연속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 최대 스마트폰 수출 지역으로 부상

- 중국(홍콩 포함, 2.7억 달러, 22.2% ↑)은 완제품(△64.3%)이 하락했으나 3D 센싱 모듈, 카메라 모듈 등 부품품(30.2% ↑)이 늘어나면서 '20.10월 이후 21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미국(0.8억 달러, △62.9%)은 부품품(56.7% ↑) 증가에도 애플 등 경쟁 업체 선진 및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현지 수요 위축 등으로 완제품(△76.9%)이 부진하면서 하락

- 베트남(0.7억 달러, △65.6%)은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 축소를 위해 현지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카메라 모듈, PCB, 패널, RFIC 등 관련 부품품(△66.0%) 및 완제품(△34.7%)이 하락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1.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을 고려해 '22.2월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로 이전

표 1-9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상반기
휴대 단말기	9.6 (1.2)	11.8 (67.5)	12.1 (19.3)	13.8 (17.3)	14.7 (16.9)	13.4 (4.7)	10.1 (△15.4)	9.8 (△5.0)	15.1 (36.7)	12.4 (0.6)	10.5 (1.0)	8.8 (1.4)	66.6 (3.1)
완제품	3.9 (0.6)	3.9 (99.2)	3.3 (0.8)	4.0 (8.9)	4.3 (6.4)	3.7 (18.4)	1.3 (△67.2)	2.7 (△37.0)	7.7 (75.3)	5.7 (△0.6)	4.2 (2.0)	4.6 (18.3)	26.1 (△0.4)
부품품	5.7 (1.5)	7.9 (55.2)	8.8 (28.1)	9.7 (21.2)	10.4 (21.8)	9.7 (0.2)	8.8 (8.9)	7.1 (18.2)	7.4 (11.3)	6.8 (1.7)	6.3 (0.4)	4.2 (△12.4)	40.5 (5.5)

자료 : IITP, KTSPI

그림 1-7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49.5	70.2	35.4	중국	2.6	35.9	29.6	30.5	65.5	45.7
2	베트남	29.4	-7.9	21.0	독일	1.0	143.3	10.9	4.1	69.0	6.1
3	미국	24.5	-2.0	17.5	오스트리아	0.8	470.7	9.5	3.2	245.9	4.9
4	영국	5.3	36.6	3.8	미국	0.8	-62.9	9.2	6.9	-52.6	10.3
5	독일	4.8	76.4	3.4	베트남	0.7	-65.6	8.1	4.9	-64.8	7.4
6	홍콩	3.8	0.1	2.7	영국	0.6	18.6	6.8	3.5	22.4	5.2
7	인도	3.3	192.3	2.4	네덜란드	0.4	520.9	4.6	1.8	144.2	2.7
8	일본	2.2	9.0	1.6	이탈리아	0.3	259.1	2.9	1.1	175.3	1.6
9	프랑스	2.0	149.6	1.4	프랑스	0.2	-29.7	2.5	1.2	51.2	1.9
10	오스트리아	1.9	467.0	1.4	인도	0.2	318.2	2.2	1.2	89.6	1.7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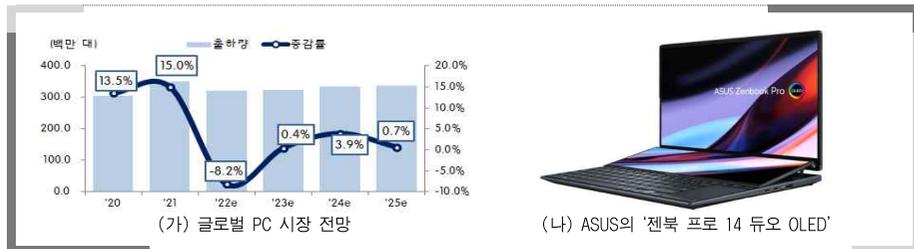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PC) 올해 시장은 반락 전망, 다만 하반기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경쟁은 지속

-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 부품 공급난 등으로 하락 전환 전망
 - '22.상반기(1억 5,180만 대, △11.3%)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망 타격,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두 자릿수 하락
 - 하반기에도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면서 '22년 PC 시장(3억 2,120만 대, △8.2%)은 데스크톱 PC(8,240만 대, △6.9%), 노트북(2억 3,880만 대, △8.6%) 등의 동반 수요 감소로 반락 전망
 - ※ 올해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전망치가 한차례 큰 폭 하향 조정(△7.2%p)된 점도 눈길
- (업체 동향) 신형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출시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출시 경쟁 과열 양상
 - (Dell) 인텔 12세대(엘더레이크) 프로세서를 장착한 16인치 소비자용 '인스피론' 노트북과 비즈니스용 '보스트로' 노트북 신제품 2종을 공개('22.7.14일)
 - (Apple) 차세대 프로세서 'M2'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13.6인치)' 신제품을 공식 출시('22.7.8일). 특히 M2 칩은 M1 대비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각각 18%, 35%가량 성능이 개선되었고,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도 이전 대비 속도가 40% 향상
 - ※ 한편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애플 위탁생산 업체들인 폭스콘, 퐁타 등의 공장이 정상 가동에 차질이 발생해 동 사의 신제품이 한 달가량 지연 출시된 점에 눈길
 - (ASUS) 엘더레이크 프로세서를 탑재한 14.5인치 '젠북 프로 14 듀오 OLED' 신제품을 출시('22.7.11일). 12.7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2,880×1,800 화소)와 2,880×864 화소의 스크린 패드 플러스 등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

그림 1-8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신제품 이미지



자료 : IDC, 2022.6.

□ (태블릿PC)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 정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태블릿PC 시장(1억 5,800만 대, △6.2%)은 역성장 진입 전망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 악화, 공급망 문제 등으로 소비자용·교육용 수요가 둔화되면서 2년간의 반짝 성장을 끝으로 올해 다시 하락세에 진입한 이후 시장 정체가 지속될 전망
 - ※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 증감률 전망(%) : ('22e) △6.2, ('23e) △2.8, ('24e) 0.7, ('25e) △0.7, ('26e) △0.7
 - 특히 슬레이트 시장(8,130만 대, △11.0%)은 감소폭이 두 자릿수대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며 키보드와 모니터가 분리되는 디태처블 시장(7,670만 대, △0.5%)도 하락 전환할 전망
- (업체 동향) Apple은 OLED 패널 탑재를 예고, 中 스마트폰 업체들은 인도 시장에 진출
 - (Apple)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차기 제품 11인치, 12.9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24년 출시할 것이라 예고 OLED를 채용하여 높은 화질 제공은 물론 무게도 한층 더 가벼워질 것이라 발표
 - (아미존) 가성비 태블릿 판매 호조 등으로 '22.1분기 9.8% 점유율(출하량 기준)로 3위를 재탈환한 동 사는 지난 5월에 매우 저렴한 59.99달러의 '파이어7' 태블릿PC를 출시. 이전 제품 대비 배터리 수명은 40% 증가하였고 쿼드 코어 프로세서 속도도 30% 개선해 주목
 - (오포) 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동 사는 보급형 태블릿PC '오포 패드 에어'를 인도 시장에 출시(7.21일). 해당 제품은 10.36인치 LCD 패널과 퀄컴 스냅드래곤 680 프로세서 등을 탑재하였으며 가격은 20만 원(4GB + 64GB 기준)대에 책정될 것으로 관측
 - (리얼미) 스냅드래곤 695 프로세서를 탑재한 11인치 '리얼미 패드 X'도 7.26일 인도 시장에 출시. 두께 7.1mm, 무게 499g, 4,096레벨의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 등이 탑재되었으며 판매가는 약 24만 원대에 형성될 전망
 - (홍미) 한편 샤오미 계열사인 홍미의 첫 태블릿PC '22081281AC'가 중국 3C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관측돼 '22.8월 내로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
 -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보급형 태블릿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양상

그림 1-9 글로벌 슬레이트 및 디태처블 태블릿PC 시장 전망



자료 : IDC, 2022.6.

□ (SSD) 기업용 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 400억 달러대를 첫 돌파할 것으로 기대

- (시장 전망) '22년 SSD 시장은 데이터 센터向 수요가 늘어나면서 출하량(4억 6,970만 대, 9.4%↑)과 매출액(475억 달러, 23.6%↑)이 동반 성장할 전망
 - (소비자용) PC·노트북 등 전방 수요 둔화, SSD 공급 과잉 등으로 올해 출하량(3억 9,238만 대, 8.2%↑)과 매출액(213.0억 달러, 13.6%↑)은 다소 완만한 성장을 보일 전망
 - (기업용) 메타버스·인공지능 발달,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가속 등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수요 대응을 위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
 - ※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됨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은 '21년 79ZB → '25년 181ZB(제타바이트) 규모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삼성전자)
 - 이에 기업용 SSD 시장이 수혜를 입으며 '22년 출하량(6,193만 대, 15.5%↑), 매출액(257.7억 달러, 33.4%↑) 모두 두 자릿수대 증가를 보일 전망
- 글로벌 업체들은 4세대·5세대 PCIe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SSD 개발 및 출시에 몰두
 - (마이크론) 176단 3D 낸드 기반, PCIe 4.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소비자용 SSD 신제품 2종 ('Crucial P3 Plus Gen4 NVMe', 'Crucial P3 Gen3 NVMe SSD')을 출시(7.7일)
 - 크루셜 플러스 제품은 순차 읽기·쓰기 속도가 최대 5,000·4,200MB/s이며 PCIe 3.0 제품 대비 성능이 43% 빠른 것으로 관측. 크루셜 제품은 최대 3,500·3,000MB/s 속도를 지원
 - (삼성전자) 차세대 UFS(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내장 메모리 규격) 4.0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PCIe 5.0²⁾ SSD 제품 양산을 올해 내에 본격 도입할 것이라 예고(6.30일)
 - ※ 동사는 '21.12월 PCIe 5.0 규격의 서버용 SSD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으며 '22.5월 SSD에 탑재되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 UFS 4.0 규격 개발에도 성공해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SSD 시장 주도권 확대가 기대

그림 1-10 글로벌 소비자용 및 기업용 SSD 시장 전망



자료 : IDC, 2022.5.

2) PCIe 5.0은 기존 PCIe 4.0 대비 대역폭이 2배로 커져 32GT/s(초당 전송 수)를 지원하는 차세대 통신 규격으로 데이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

2) 수출 동향

□ '22.6월 수출은 주변기기 수요 호조 등으로 16개월 연속 상승 곡선 지속

- (품목별) SSD 수요 견조 등에 힘입어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6.9억 달러 기록
 - (컴퓨터 : 0.9억 달러, △51.4%)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 여파 등으로 데스크톱PC(0.04억 달러, △22.0%), 부품품(0.5억 달러, △66.9%) 등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6개월 연속 큰 폭 감소
 - (주변기기 : 16.0억 달러, 23.0%↑) 데이터 센터向 SSD(13.4억 달러, 21.0%↑) 수요 폭증, 모니터 판매 호조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장기간 지속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등으로의 수출은 하락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성장 지속
 - 미국(8.4억 달러, 60.4%↑)은 SSD(7.5억 달러, 72.2%↑), 모니터(0.3억 달러, 20.9%↑)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오름세
 - 중국(홍콩 포함, 3.6억 달러, △28.2%)은 주변기기 수출(3.2억 달러, △15.0%) 반락, 컴퓨터 부품(0.3억 달러, △73.1%) 감소 등으로 하락 폭이 두 자릿수대로 확대되며 2개월 연속 감소
 - 일본(1.0억 달러, 17.6%↑)은 '96년 이래 사상 최대 SSD 수출(0.7억 달러, 35.6%↑)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성장 지속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5 (28.2)	16.9 (26.6)	19.2 (49.1)	14.8 (48.5)	17.8 (70.8)	16.6 (43.5)	15.3 (54.3)	15.8 (47.9)	17.9 (36.9)	17.6 (58.0)	17.7 (32.8)	16.9 (13.6)	101.3 (38.6)
컴퓨터	2.1 (4.5)	1.8 (5.1)	2.0 (△0.3)	2.1 (16.6)	2.2 (10.6)	2.4 (12.8)	1.0 (△40.0)	0.8 (△48.9)	0.7 (△61.4)	0.9 (△44.8)	0.9 (△53.2)	0.9 (△51.4)	5.2 (△50.3)
부품	1.8 (10.5)	1.5 (4.5)	1.6 (△5.8)	1.7 (16.3)	1.8 (8.0)	1.8 (9.3)	0.6 (△59.4)	0.4 (△69.0)	0.4 (△74.8)	0.5 (△62.6)	0.5 (△68.4)	0.5 (△66.9)	2.9 (△67.0)
주변기기	13.4 (32.9)	15.1 (29.8)	17.3 (58.0)	12.8 (55.3)	15.6 (85.0)	14.2 (50.4)	14.4 (72.7)	15.0 (63.9)	17.2 (52.8)	16.7 (75.6)	16.8 (47.5)	16.0 (23.0)	96.1 (53.4)
보조기 장치	11.2 (33.3)	13.6 (33.0)	15.3 (61.6)	10.9 (59.8)	13.9 (102.5)	12.3 (54.3)	12.1 (71.1)	13.2 (69.2)	14.2 (54.9)	14.4 (91.2)	14.1 (45.7)	13.5 (21.0)	81.5 (55.5)
프린터	0.4 (22.6)	0.3 (△13.7)	0.3 (△12.4)	0.3 (△9.5)	0.3 (△3.7)	0.4 (6.3)	0.4 (15.5)	0.3 (0.5)	0.4 (17.8)	0.4 (△1.9)	0.4 (3.3)	0.4 (△8.1)	2.3 (4.1)
모니터	0.7 (75.4)	0.6 (54.7)	0.7 (68.7)	0.7 (69.7)	0.8 (63.2)	0.9 (63.3)	1.3 (191.1)	1.0 (111.9)	1.2 (119.2)	1.1 (125.9)	1.1 (101.8)	1.0 (72.4)	6.7 (117.0)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6.8	25.3	32.7	미국	8.4	60.4	49.6	36.1	60.9	35.6				
2	중국	44.8	8.9	25.8	중국	2.4	-29.0	14.0	21.3	4.5	21.1				
3	홍콩	19.1	52.4	11.0	홍콩	1.3	-26.7	7.5	9.7	38.2	9.6				
4	일본	5.6	11.5	3.2	일본	1.0	17.6	5.7	4.6	52.6	4.5				
5	대만	4.9	52.1	2.8	네덜란드	0.8	307.6	4.8	4.8	192.0	4.7				
6	네덜란드	4.7	58.3	2.7	싱가포르	0.4	58.3	2.5	2.7	109.6	2.7				
7	멕시코	4.7	35.4	2.7	독일	0.3	24.1	1.9	1.7	41.9	1.7				
8	싱가포르	4.3	106.0	2.5	베트남	0.3	99.2	1.8	2.1	169.4	2.1				
9	아일랜드	4.2	94.9	2.4	멕시코	0.3	-26.5	1.6	2.6	17.0	2.6				
10	독일	2.8	7.3	1.6	대만	0.2	-6.9	1.4	2.8	24.6	2.7				

자료 : IITP, KTSPi

6 이차전지

1) 수출 환경

□ 올해 이차전지 시장은 점진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탈탄소 확대 기조로 전기자동차·E-모빌리티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시장은 성장 전망, 다만 이차전지 가격 급등이 우려
 - (중대형 시장) 각 국 정부 주도로 탄소 감축 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1년 660만 대 → '25년 2,100만 대 수준으로 세 배 이상 성장할 전망(BNEF, '22년)
 - 이에 따라 상용차·승용차용 이차전지 수요가 촉진되면서 각각 연평균 40.9%, 28.1% 성장률 ('22~'30년)로 증가할 전망(SNE리서치, '22.4월)
 - ※ 글로벌 상용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22년 37GWh → '30년 574GWh, 승용차용 이차전지도 동 기간 439GWh → 3,176GWh 규모로 큰 폭 성장 전망
 - (소형 시장) 친환경 개인용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22.8GWh, 34.9%↑) 등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22년 소형 이차전지 시장(109.8GWh, 8.0%↑)은 성장 전망(SNE리서치, '22.2월)
 - 한편 라우전쟁, 인도 등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니켈 등 원재료 가격이 크게 폭등하면서 이차전지 가격이 반등. 일각에서는 전기차 대중화 개화 시기 지연을 우려
 - ※ 배터리팩 가격은 '18년 188달러/kWh에서 '21년 156달러/kWh까지 하락했으나 '22년 다시 168달러/kWh로 상승
- (경쟁 현황)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22.1~5월 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올해 1~5월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한 157.4GWh 규모로 성장했으나 국내 이차전지 3사 시장 점유율(25.6%)은 중국 업체에 밀려 9.1%p 하락
 - ※ 다만 SK On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니로 등의 판매 증가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률 기록

그림 1-12 글로벌 소형 이차전지 시장 전망 및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2022.2. / 2022.7.

□ 글로벌 업체들은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해 기술력 제고 및 판매처 확대 등의 전략을 구사

- 저가형 LFP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최근 삼원계 이차전지 출시를 예고해 눈길
 - CATL은 자사의 독자적인 CTP(Cell to Pack)³⁾ 기술을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CTP3.0 기린(麒麟) 배터리' 신제품을 공개('22.6월)
 - * CTP 방식 적용 시 외부 충격, 열 등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던 모듈이 제거됨으로써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성이 크게 개선돼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60Wh/kg, NCM 배터리는 250Wh/kg 수준까지 향상될 전망
 - 동 사는 해당 제품이 차세대 4680 이차전지 대비 전하량이 13%가량 높고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 설명하며 '23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 예고
 - * 국내 업체들이 차세대 제품으로 집중하고 있는 4680(지름 46mm, 길이 80mm) 이차전지를 견제하기 위해 CTP 기술로 응수하는 모양새
 - 또한 LFP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삼원계 NCM 이차전지로도 라인업을 확대 출시할 것이라 발표해 주목. NCM 이차전지 시장에서 한-중-일 간 경쟁이 치열해질 분위기
- (참고) 중국 업체, 국내 완성차 업체 등 신규 고객사 확보에 매진하며 공격적 행보 지속
 - CATL은 기아차의 신형 '니로 EV' 向 삼원계 이차전지(64.8kWh) 공급을 개시('22.6월). BYD도 쌍용차와 MOU를 맺고 '23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U100'에 LFP 이차전지를 공급기로 계약. 중국 업체들이 자국 시장이 아닌 해외로도 진출을 확대하는 모양새
 - * 기아차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처음으로 국내 내수용 전기차에 중국 업체의 이차전지를 채택해 주목.
- LG에너지솔루션, 美 이차전지 공장 건설 투자 계획을 잠정 보류기로 결정
 - LG에너지솔루션은 '22.3월 美 애리조나주에 원통형 이차전지 단독 공장(연간 11GWh 규모) 구축 계획을 밝히며 1.7조 원을 투입기로 결정.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등으로 투입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 발표('22.6.29일)
 - 고물가, 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용이 2조 원 중반 대까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다만 GM과 합작하여 건설 중인 테네시주 2공장(35GWh), 미시간주 3공장(50GWh)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2공장은 '23.하반기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할 예정

표 1-13 韓 주요 완성차 업체와 中 이차전지 업체 간 협력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이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 플랫폼 E-GMP용 이차전지 2·3차 공급사로 CATL을 선정 * 단, 2차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공동 공급사로 선정
쌍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D와 이차전지 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기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에 BYD와 공동 개발한 이차전지를 채용할 예정 • 신형 니로 EV에 CATL의 삼원계 이차전지를 탑재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3) 기존 이차전지 형태인 셀-모듈-팩 가운데 모듈을 생략하고 셀-팩으로만 구성하는 기술

2) 수출 동향

□ '22.6월 축전지(이차전지) 수출은 주춤하며 9개월 만에 소폭 하락 전환

- (품목별) 부분품 수출 하락 지속, 축전지 수출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8.0억 달러 형성
 - (축전지 : 7.3억 달러, △1.3%) 전년 기저 효과 등으로 9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으나 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등의 이차전지 수요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7억 달러대를 상회
 - (부분품 : 0.6억 달러, △14.1%) 중국(홍콩 포함, 0.3억 달러, △18.6%), 폴란드(0.1억 달러, △44.1%) 등으로의 수출 내림세로 5개월 연속 하락 기록
- (국가별) 미국·베트남·일본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독일·중국(홍콩 포함) 등은 감소
 - 미국(3.0억 달러, 13.9%↑)은 축전지(2.9억 달러, 12.6%↑)와 부분품(0.1억 달러, 73.9%↑) 수출 호조로 25개월 연속 성장 곡선을 지속
 - 완성차 고객사가 밀집되어 있는 독일(0.8억 달러, △4.4%)은 유럽 현지 생산 거점(헝가리 등)의 출하량 증가 등으로 부분품 수출(△23.5%) 등이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
 - 베트남(0.7억 달러, 148.6%↑)은 축전지(0.7억 달러, 153.6%↑)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고성장 지속
 - * 對베트남 축전지 수출 Top3(억 달러, KTSPI) : (1위, '22.6월) 0.7, (2위, '22.4월) 0.5, (3위, '21.12월) 0.5

표 1-14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상반기
축전지	7.9 (31.4)	6.9 (10.8)	7.2 (△2.0)	6.9 (1.5)	7.3 (7.5)	7.4 (3.4)	7.3 (16.0)	6.9 (10.5)	8.6 (8.7)	8.1 (12.0)	8.3 (14.3)	8.0 (△2.0)	47.2 (9.5)
축전지	7.1 (36.7)	6.2 (11.5)	6.6 (△1.0)	6.3 (3.2)	6.8 (11.6)	6.7 (6.3)	6.6 (17.3)	6.3 (14.0)	7.9 (11.1)	7.4 (14.6)	7.6 (16.5)	7.3 (△1.3)	43.1 (11.5)
부분품	0.8 (△2.2)	0.7 (5.1)	0.6 (△11.6)	0.6 (△14.5)	0.5 (△26.4)	0.6 (△20.4)	0.7 (2.8)	0.6 (△16.2)	0.7 (△16.3)	0.7 (△12.4)	0.7 (△8.7)	0.6 (△14.1)	4.0 (△11.1)

자료 : IITP, KTSPI

그림 1-13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5 축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27.4	123.9	31.6	미국	3.0	13.9	38.1	17.7	34.9	37.4
2	독일	9.9	-2.3	11.4	독일	0.8	-4.4	9.8	4.9	-2.2	10.5
3	중국	8.5	-24.9	9.8	베트남	0.7	148.6	9.1	2.8	53.2	5.9
4	폴란드	5.7	-16.4	6.6	중국	0.4	-40.8	5.3	3.3	-26.4	6.9
5	베트남	3.9	2.2	4.5	일본	0.3	7.6	3.7	1.9	15.6	4.0
6	일본	3.5	5.8	4.0	헝가리	0.3	59.1	3.4	1.7	147.2	3.7
7	헝가리	2.6	90.9	3.0	폴란드	0.3	-60.9	3.3	1.6	-57.7	3.4
8	호주	2.1	41.8	2.4	대만	0.2	367.0	2.9	0.7	170.8	1.5
9	홍콩	1.8	-37.1	2.0	호주	0.2	-53.2	2.1	1.1	-5.3	2.4
10	프랑스	1.6	32.1	1.9	이탈리아	0.2	134.6	1.9	0.7	61.3	1.6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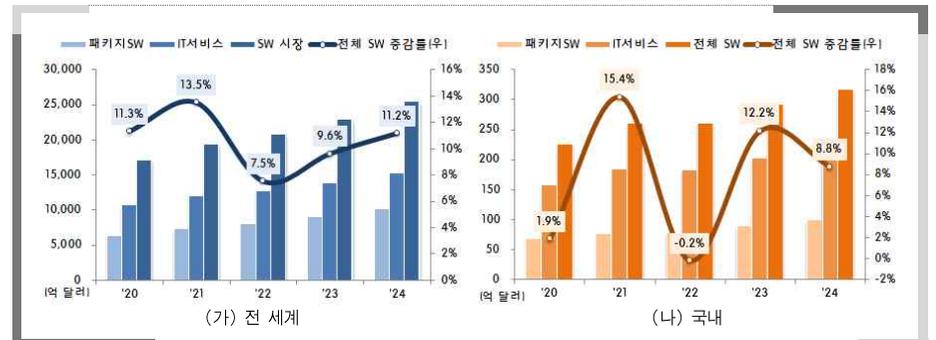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디지털 전환 속 글로벌 시장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반면 국내 SW 시장은 위축이 예상

- (전체 시장) '22년 시장 규모는 디지털 전환 수요 등에 힘입어 IT서비스 및 패키지SW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2조 900억 달러로 예상(Gartner, '22.7월)
 -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SW 도입이 확대.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우려 요인
 - IT서비스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형인프라(IaaS),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급등하면서 6.2% 증가한 1조 2,080억 달러가 예상
 - 패키지SW는 시스템 인프라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 SW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9.6% 증가한 8,068억 달러로 약 10%의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국내 시장) '22년 시장 규모는 패키지SW 증가에도 불구하고 IT서비스 분야 감소로 전년 대비 0.2% 하락한 261억 달러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Gartner, '22.7월)
 - IT서비스는 서비스형인프라는 증가하나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 서비스, 하드웨어 지원 등의 분야가 부진하며 전년 대비 0.9% 감소한 183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는 기업 내 협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확대되면서 인프라SW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7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그림 1-14 전 세계 및 국내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7.

□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AI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사업 역량을 강화

- 삼성SDS는 AI 기업 지분 투자를 통한 물류 역량 강화, LG CNS는 AI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SK C&C는 의료 관련 AI 기업과의 협업 확대 및 서비스 본격화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력 확대에 총력

표 1-16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업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물류 스타트업 비전의 지분 투자를 통해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 -삼성벤처투자펀드를 통해 해상 물류 가시성⁴⁾ 기술을 보유한 비전에 지분을 투자('22.7.6일). 이번 투자를 통해 비전에서 제공하는 화물 정보를 자사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와 연계해 화물 운송 트래킹, 선박 스케줄 등 정보 제공 및 화물 도착시간 예측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비전은 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해운 선사 및 항만터미널의 화물 위치 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확도가 높은 화물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삼성SDS가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첼로 스퀘어'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 및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전문기업 파운트의 협업을 통해 마이데이터기반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 서비스 역량을 확대 -'22.6.29일 파운트와 마이데이터기반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LG CNS의 마이데이터, 금융 등 특화된 시스템 통합, 금융데이터 관리 노하우에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파운트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전망 -이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AI,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등이 종합적으로 접목된 신기술을 선보이며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외에도 향후 마이데이터 및 로보어드바이저 B2B 사업 공동개발, 자사 복지를 '라이프케어' 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자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루조각' 등과의 제휴를 통한 맞춤형 투자 컨텐츠 제공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 AI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딥노이드·루닛·뉴노 등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 3곳과 의료 AI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2.6.23일)했으며 의료 AI 분야 글로벌 산업·기술 트렌드 공유 및 뇌질환·흉부질환·유방암·척추질환 등 질환의 영상 판독 AI 솔루션을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을 시작 -또한 각 사별 의료 AI 솔루션을 종합해 의료 기관 맞춤형 의료 AI 패키지 상품 개발도 추진하며 상품 개발 시 필요에 따라 부위·질환별 의료 AI 솔루션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을 전망 • 전국 권역별 주요 종합병원 11곳에 AI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며 의료 분야 서비스를 강화 -전국 종합병원 11곳(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아주대학교병원·분당차병원·인하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대구국모병원·원광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광혜병원 등)에 AI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을 공급('22.6.14일) ※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뇌 CT영상을 수초 내로 분석해 97% 이상 정확도로 출혈 위치와 이상 여부를 알려줘 작고 미세한 출혈도 신경두경부 영상의학전문가의 수준으로 판독이 가능 -이를 통해 병원 내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적시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4) 물류 가시성이란 정확한 화물 출·도착시간, 위치 정보 등 물류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경쟁력의 핵심요소



II 트레이드 GPS⁵⁾

1 베트남 - 안테나

□ 베트남의 5G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 행보로 무선통신 장비인 안테나에 주목

- 베트남은 올해 5G 상용화를 목표로 선결 과제인 통신망 구축에 힘쓸 전망
 -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61.4% '20년 기준)이 세계 10위이며 인터넷 사용자도 총 인구의 73.2% ('22.1월 기준, Kepios)로 통신 서비스 사용량이 높아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국가(Statista)
 - 또한 정부가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20.6월)', '5G 상용화 및 6G 신기술 개발 착수('22.1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시행함에 따라 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
 - ※ '25년까지 약 630만 명의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고 '25년부터는 매년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NIPA, '22.3월)
 - 이에 따라 급증하는 통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기지국용 위성용·모바일용 등의 안테나 시장 성장이 기대

○ 안테나⁶⁾ 정의 및 역할

- 5세대 무선통신은 4G 대비 전송속도가 20배가량 빠른 반면 파장 길이가 10mm보다 짧은 밀리미터파 주파수로 방해물, 날씨 등에 쉽게 차단되거나 왜곡되는 단점이 존재
- 이러한 이유로 5G 통신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 스마트폰, 외부 공간 곳곳(도로, 전봇대 등)에의 안테나 설치 확대가 필수. 즉 이동통신이 고도화될수록 안테나 수요는 동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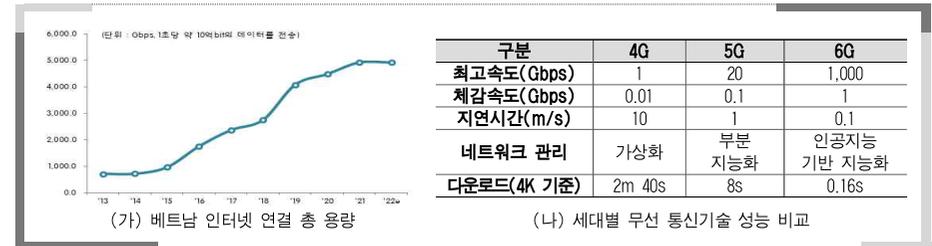
<무선 주파수 대역 분류>

대역 구분	주파수 범위	파장	용도
VLF(장파)	3~30kHz	100~10km	• 항해 통신 / 잠수함 통신
LF(저주파)	30~300kHz	10~1km	• 항해 통신
MF(중파)	0.3~3MHz	1,000~100m	• 표준 AM 방송 / 항공 및 선박 아마추어 통신
HF(단파)	3~30MHz	100~10m	• 대륙 간 통신 / 아마추어 무선통신
VHF(초단파)	30~300MHz	10~1m	• TV 방송 / FM 스테레오 방송
UHF(극초단파)	0.3~3GHz	100~10cm	• 휴대전화
SHF(마이크로 웨이브)	3~30GHz	10~1cm	• 위성통신 / 레이더 / M/W고정통신
EHF(밀리미터파)	30~300GHz	10~1mm	• 미래통신(5G)
광파	300~3,000GHz	1~0.1mm	• 미래통신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5)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6) 고주파 전력을 공기 중의 전자파로 변환해 효율적으로 방사하거나 공기 중의 전자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신해주는 장치

그림 2-1 베트남 인터넷 연결 총 용량 및 세대별 무선 통신기술 성능 비교



자료 : VNNIC(베트남 인터넷 센터), 언론 자료 정리

- (기지국용) 5G·6G의 진정한 속도 구현을 위한 필수 장비 기지국용 안테나에 주목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2년 5G 서비스 정식 상용화, '25년 5G 이용자 비율 2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 6G 신기술 연구 개발에도 본격 착수할 것이라 발표
 - 현재 베트남 5G 서비스는 주요 통신 3사(VNPT, MobiFone, Viettel)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5G용 주파수 대역 확대 및 속도 개선을 목표로 기지국용 안테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 5G 서비스가 시행 중인 곳은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하이퐁시, 칸토시, 박닌시, 박지양시, 빈푹성(Binh Phuoc), 투아티엔후에성, 빈푹성(Vinh Phuc), 평닌성, 타이응옌성, 동나이성(Dong Nai), 빈즈엉성(Binh Duong), 벤째(Ben Tre),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등 16개 지역
- (위성용) 차세대 통신매체로 소형 인공위성 도입이 확대되며 저궤도 위성통신이 부상. 위성통신장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성용 안테나 시장도 성장 전망
 - 위성통신은 기존 광케이블(유선)과 달리 지상-위성 간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통신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상공-해상 등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통신 교환이 가능
 - ※ 전달 매질이 진공인 저궤도 통신위성은 빛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며 한 기의 위성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여 인터넷 취약지역 개선 등에 효과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베트남은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위성 '나노드래곤'을 일본 '엡실론 5호' 로켓에 실어 발사하였으며 '21.11.9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 해당 위성은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해상 위의 선박들과 통신을 유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InsideVINA, '21.11월)
 - 미래 6G 상용화와 함께 무인 이동체(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자율운행 선박, 스마트 항공 등) 서비스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이와 더불어 위성통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수요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글로벌 위성통신장비 시장은 '21년 220억 달러→'26년 537억 달러(CAGR 19.6%↑) 규모로 성장할 전망(전자신문, '21.11월, 원소스 R&M)

- **(모바일용) 5G 스마트폰 등의 사용 확대**로 모바일용 안테나 수요도 성장 전망
 - 스마트폰에는 블루투스 및 NFC 안테나, GPS용 안테나, 와이파이용 안테나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5G 통신 발달에 따라 LTE용 안테나와 더불어 5G용 안테나가 추가 탑재
 - 베트남의 5G 상용화, 서비스 가입자 확대 정책에 따라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돼 모바일용 안테나 수요 또한 더욱 증가할 전망

그림 2-2 | 저궤도 위성 통신 인터넷 원리 및 궤도별 지구 커버 면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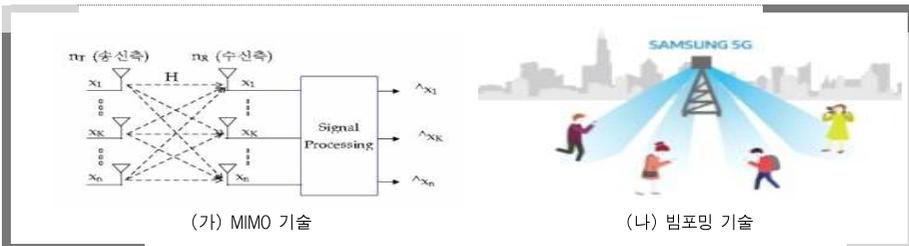


자료 : 유진투자증권, 2022.4. (원소스 The Economist / Statista) 재인용

□ 효율적이고 원활한 5G 이동통신 무선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핵심 기술에 주목

- 5G 핵심 기술로 빔포밍(Beamforming)과 mMIMO(massive Multiple input-Multiple output)가 대두
 - mMIMO는 다중입력·다중출력을 기본으로 기지국과 단말기에 다수의 안테나를 탑재하여 통신 용량을 높여주는 기술(안테나 수와 비례)로 5G 시대 필수 요소로 주목
 - ※ 4G는 평균 2~4개의 안테나가 사용되나 5G는 100개 이상의 안테나 소자가 사용돼 mMIMO 기술이 중요
 - 이와 함께 안테나에서 송수신되는 전파의 거리를 연장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전송해주는 빔포밍 기술이 결합되면서 채널 손실 및 사용자 간 간섭을 최소화해 통신 효율성을 제고

그림 2-3 | MIMO 및 빔포밍 기술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글로벌 업체들은 통신 인프라의 핵심 부품인 안테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 및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

- **(위성용 안테나)** 업체들은 오지·해상 등에서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위성용 안테나 공급 수주를 확대
 - (인텔리안 테크)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1위인 동 사는 스타링크·원웹·아마존 등 글로벌 업체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확대 흐름에 따라 차세대 위성통신 장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1.8월 제2 생산 공장 건설(300억 원 투입, '22.8월 완공 예정)에 착수
 -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 '원웹'과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공급계약('22.3분기부터 공급)을 체결하며 판매처 확대에도 집중하는 모양새('22.6월)
 - (카이메타) 美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기술 선도 기업인 동 사는 '22.3월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지원 받은 약 1,100만 달러의 추가 투자금을 저궤도 위성통신용 2세대 제품군('U8')과 3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발표. 또한 '24년 항공용 안테나 출시도 예고
 - ※ 지난 '20.12월에 한화시스템으로부터 3,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지원받으며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
 - 특히 동 사의 안테나는 메타구조의 위성통신 빔 조향 기술을 구현하고 있어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 메타구조란 위성 안테나 유리 기판 상에 미세 패턴을 형성해 전파·소리·빛의 파장과 형태를 조절하여 위성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
- **(통신용 안테나)** 5G·6G 이동통신 확대와 함께 소형·고효율·고품질 통신을 제공해주는 안테나 신제품 출시 및 기술력 제고에 집중
 - (Comba Telecom) 5G 시장 성장에 발맞춰 초저손실·소형화 5G 전용 안테나 'Ultra Multi-band FDD+2.3~3.8G TDD Integrated Antenna'를 출시('21.9월)
 - 이어 '22.6월 Pin-to-Pin 방식의 통합 모듈 솔루션을 적용하여 손실은 낮추고 효율은 높은 '4G/5G(8TR) 통합 친환경 기지국 안테나'도 출시. 해당 제품은 재료는 물론 제조 과정에서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탄소 감축 행보에도 일조한 것으로 관측
 - ※ 기존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전기 도금 공정 방식 대신 이온 빔 코팅을 적용하는 새로운 친환경 코팅 공정을 적용
 - (Molex) IoT 기기, 보안기기 등 스마트 홈 적용에 최적화된 4G/5G 외부 안테나를 출시('20.9월). 작은 크기의 원지형 형태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점이 특징
 - (LG유플러스) '22.3월 6G 이동통신의 안테나 선형 기술인 '채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7' 기능 검증을 진행. 이어 7월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노키아와 6G 주파수(테라헤르츠파) 확장 기술 확보를 위해 RIS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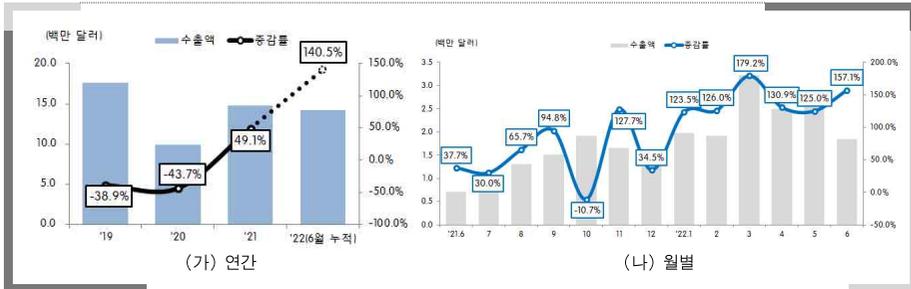
7) RIS는 안테나 표면의 전자기적 특성을 이용해 기지국에서 나온 전파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6G 기술요소 중 하나이며 외부 신호를 건물 안으로 전달하는 '투과효과', N-LoS(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의 '반사효과'로 음영지역에 대한 커버리지 개선이 가능

- (기가레인) 5G 기지국용 안테나 모듈 생산용량 확대를 위해 '20.8월 70억 원을 추가 투입(총 160억 원)하며 베트남 생산 시설 증설에 집중 투자
- '22.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북미·인도 등의 지역으로 판매처를 다각화해 안테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

□ (수출 동향) 5G 이동통신 발달, IoT 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안테나 수요가 확대

- (전체) '22.6월 베트남 안테나 수출은 6개월 연속 세 자릿수대 성장 곡선을 지속
- (연간) 베트남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안테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21년(1,481만 달러, 49.1%↑) 수출은 5년 만에 상승 전환. '22년(6월 누적, 1,418만 달러, 140.5%↑)은 5G 상용화를 위한 수요가 더해지면서 세 자릿수 성장세로 반기 만에 1,000만 달러대를 돌파
- (월별) '21.10월 수출(191만 달러, △10.7%) 증가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11월(166억 달러, 127.7%↑) 바로 회복 반등하며 고성장 지속. '22.3월(322만 달러, 179.2%↑) 수출은 '18.10월 이후 처음으로 300만 달러대를 돌파해 주목
- '22.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한 184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 기록

그림 2-4 對베트남 안테나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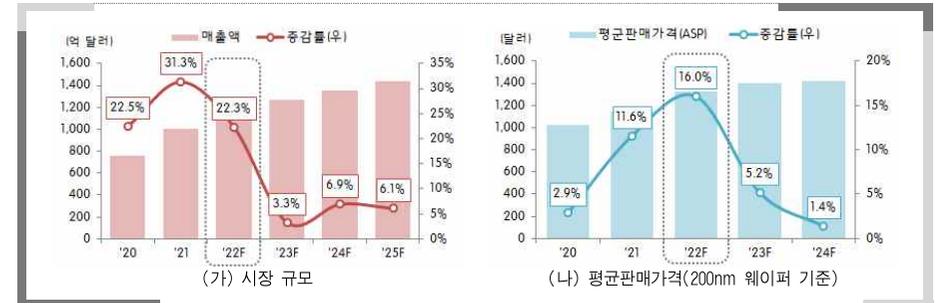
주: HSCODE 851771100, 8517719000, 8529101000, 8529109290, 8529109100, 8529109210, 8529109300, 8529109900을 포함한 값

2 파운드리

□ 파운드리 시장은 소비재 시장 및 고사양 반도체 등 수요 증가로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22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한 1,226억 달러로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Gartner, '22.7월)
 - '2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의 비대면 환경 전환 및 코로나19 보복소비로 가전·5G폰 등 ICT 제품, 자동차 등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대만·일본 등지에서 한파·지진·가뭄 등 자연재해로 파운드리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확대
 - '22년 공급 부족은 완화되나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웨이퍼 판매 가격 상승이 파운드리 생산 가격 인상을 견인하면서 올해 파운드리 시장은 20%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전망
- ※ IC인사이츠도 '22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20% 증가한 1,321억 달러로 전망('22.3월)

그림 2-5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및 평균판매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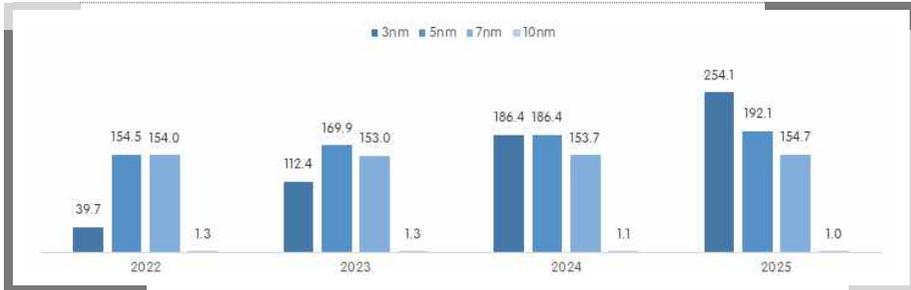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7.

- (참고 - 파운드리 가격 인상)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여파로 원재료 및 물류비용이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업체는 가격을 잇달아 인상
- (TSMC) '21.8월 10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인 최대 20%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22.3월에는 3분기부터 8인치(200mm) 파운드리 가격을 기존 대비 10~20% 올리기로 결정. '22.5월에는 최첨단 프로세서부터 저가형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력관리칩 등 전제품의 위탁생산 비용을 '23년부터 5%~8% 추가 인상
- (삼성전자) '22.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제품별(특히 레거시(구식) 공정 중심)로 15~20%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사와는 공급 가격 협상이 완료
- (기타) 글로벌파운드리·SMIC 등 타 파운드리 기업들도 '21.하반기 10~20%의 가격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는 등 시장 선두 주자에 맞춰 후발주자들도 가격을 조정하는 양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

- 특히 고성능 컴퓨팅, AI, 5G-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부가가치의 3nm 이하 미세공정 비중 확대와 더불어 탑재 반도체 수 증가로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향후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 3nm 파운드리 공정 매출은 '22년 발생하기 시작하여 '24년 5nm 공정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5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자신문, 원소스 옴디아, '22.6.30일)
- 다만 '23년 주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전방 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3%에 그치는 등 이후 성장세는 한 자릿수 대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그림 2-6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 전망(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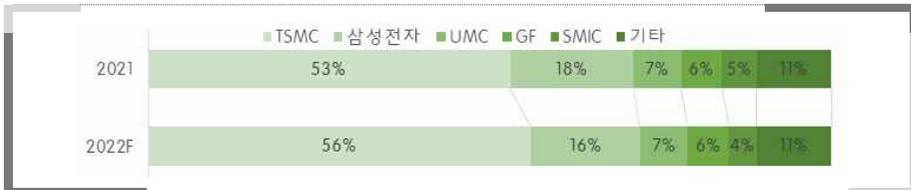


주 : 퓨어파운드리(삼성전자, 인텔 등 IDM 제외) 매출 기준
 자료 : 전자신문(원소스 옴디아), 2022.6.

□ 파운드리 시장 성장에 따라 주요 업체는 공정개발 등 R&D 및 설비 등의 투자를 확대

- (시장 점유율)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트렌드포스, '22.4월)
 - '21년에 점유율 53%를 차지했던 TSMC는 4nm 등 미세공정에서의 수율 개선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22년 점유율이 56%로 전년 대비 3%p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스마트폰 등 ICT기기 시장 수요 감소 조짐에 따라 '21년 18% → '22년 16%로 하락 우려. 다만 3nm 등 미세공정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선두를 추격할 것으로 기대

그림 2-7 파운드리 시장 전망 및 업체별 점유율



자료 : 트렌드포스, 2022.4.

- (미세공정 개발) 삼성전자가 '22.6월 3nm 파운드리 공정 양산을 시작한 가운데 TSMC도 연내 3nm 공정 양산을 계획하면서 초미세공정 경쟁이 본격화. 인텔도 2nm 양산시기를 앞당기며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축소할 계획
 - (삼성전자) '22.6월 세계 최초로 GAA⁸⁾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했으며 7.25일에는 3nm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개최하며 제품 양산을 시작. 해당 공정은 고성능 컴퓨팅 제품 양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시스템온칩(SoC)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삼성전자는 이번 3nm 양산을 시작으로 '23년 2세대 3nm, '25년 2nm 등 초미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선제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TSMC) '22.6.16일 기존 핀펫 공정에서 진보된 핀플렉스 기술을 적용해 '22년 연내 3nm 공정, '25년 GAA 기술을 활용한 2nm 공정 도입 계획을 발표.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의 차세대 공정 개발 양산 목표에 따라 초미세 공정 양산 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인텔) '21.3월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선언, '22년 7nm 공정 개발에 이어 '23년 바로 3nm 개발에 돌입하는 등 선두 업체와의 격차 축소에 총력. '24년에는 선두업체에 앞서 2nm 공정 양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초미세 공정 기술력으로 시장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표 2-1 주요 업체별 파운드리 미세공정 로드맵

업체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nm (하반기)	4nm	3nm GAA 1세대 (상반기)	3nm GAA 2세대		2nm GAA 3세대
	5nm (상반기)	4nm	3nm 핀플렉스 (하반기)	3nm+		2nm GAA
	10nm		7nm 핀펫	3nm 핀펫	2nm GAA 1세대	1.8nm GAA 예상

자료 : 업계 취합

- (설비 투자)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따라 TSMC가 대만·일본·미국 등 해외 주요 지역에 신규 설비 투자를 확대한 가운데 삼성전자·인텔 등도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생산능력을 확대
 - (TSMC) 연내 3nm 공정 개발을 공언하는 가운데 자국 및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 연이어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전개로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

8) GAA(Gate-All-Around)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선해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접촉 면적을 4배로 확대한 것으로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채널의 접촉면이 많을수록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전력 효율 개선 및 반도체 성능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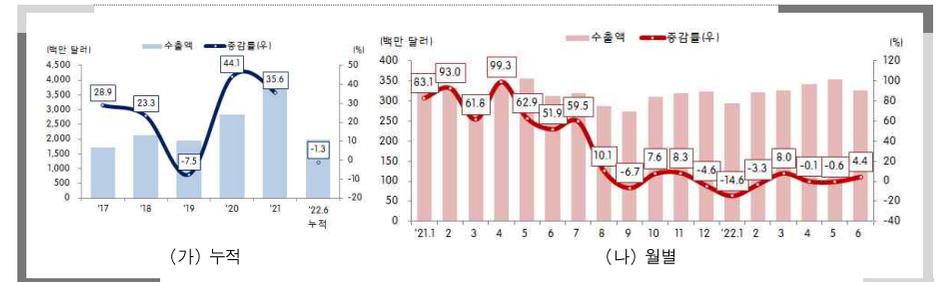
- 현재 대만 타이난에 5nm 이하 초미세 공정 웨이퍼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24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도 12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라인 건설을 진행
- 또한 일본 정부의 지원(건설비용 약 1조 1,000억 엔 중 최대 4,760억 엔을 지원)을 받아 현지 업체인 소니-텐소와 함께 '22.4월 구마모토현 공장을 착공했으며 '24.12월 양산에 돌입할 계획
- 더불어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싱가포르 내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올해 설비투자에만 40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할 전망
 - ※ 당초 TSMC는 시설 투자에 400억~44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장비 리드타임(제품 주문부터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 증가와 재고 상황을 고려해 400억 달러로 하향 조정
- (삼성전자) '21.11.23일 17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테일러시에 485만㎡ 규모의 제2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발표하는 등 시장 수요에 대응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신규 공장은 '22.1분기 착공해 '24년 하반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건설되며 5nm 이하의 초미세 공정 시설이 들어설 예정
- 또한 한국 팹텍캠퍼스의 'P3' 생산라인 완공과 더불어 'P4' 생산라인 등이 예정돼 있어 올해 반도체 투자에 4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
- (인텔) '21.3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설립 및 35억 달러 규모의 뉴멕시코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
- 또한 '22.1.21일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차세대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 공장 부지는 생산 라인 8개를 조성할 수 있는 1,000에이커 (약 404만㎡) 규모이나 '25년까지 2개 라인 가동을 목표로 '22년 말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

□ 파운드리 수출은 자동차·ICT 및 향후 고사양 반도체 등 수요 증가로 회복세에 진입

- 파운드리 수출은 '20년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견조한 실적을 지속. '22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이 둔화됐으나 향후 고사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누적) '20년 우리나라 파운드리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 비대면 환경으로의 빠른 전환 등으로 가전·5G폰 등 ICT 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4.1% 증가한 28.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 성장세로 전환
 - '21년에는 전방 수요 증가에 따른 파운드리 공급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공급 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전년 대비 35.6% 증가한 38.3억 달러로 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 ※ 역대 연간 파운드리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1년) 38.3, (2위 '20년) 28.2, (3위 '18년) 21.2
 - '22.상반기 수출은 전년 수출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에 그쳤으나 20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등 상반기 기준 역대 2번째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호실적을 지속

- ※ 역대 상반기 파운드리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1년) 19.9, (2위 '22년) 19.7, (3위 '18년) 12.7
- (월별) 전방 수요 증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판매 단가도 인상되면서 '20.8월 이후 국내 파운드리 수출은 '21.8월까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지속
 - '21.9월 이후 전년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한 자릿수 증가로 둔화 또는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7~3.5억 달러대 견조한 실적을 지속. 특히 '22.5월 수출은 3.5억 달러로 월 기준 역대 2위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6월 수출도 4.4% 증가를 기록하며 다시 성장세로 전환
 - ※ 역대 월별 파운드리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1.5월) 3.6, (2위 '22.5월) 3.5, (3위 '21.1월) 3.4
 - 향후 파운드리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등 소비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둔화되나 반도체 고사양화에 따른 수요 확대와 더불어 생산설비 및 미세공정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행보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그림 2-8 누적 및 월별 파운드리 수출 추이



주 : 시스템반도체 수출 중 파운드리 업체 실적을 합한 값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체재 재편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의 '칩4' 동맹 참여를 독려

- 美 행정부는 '22.8월 이내로 반도체 칩4('fab4') 동맹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청
 - '22.3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칩4(한국·대만·일본·미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밝히며 한국에 동참을 제안. 5월 방한 일정을 통해 반도체 협력 기조를 한 번 더 강조한 데 이어 7월에는 결정 시한을 지정하며 동맹 참여 여부에 대한 한국의 답변을 촉구
 - ※ 미국은 반도체 설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우위를 지녔으며 일본은 소재 부품 공급에서의 강점을 보유
 -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반도체 생산 인프라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기술 패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대중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포석으로도 관측.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의 협조가 필수
 - 현재 일본과 대만은 동맹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원천기술 보호, 중국의 보복 등 대내외적인 복잡한 요소를 고려하며 고심 중인 상황
 - ※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 참여 독려 행보는 협박 외교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중립적인 입장 유지가 어려워짐
 - 한국은 美 팹리스 선두업체(퀄컴, 엔비디아 등)와 협력해 반도체를 위탁생산(파운드리)하는 구도이고 중국에는 국내 업체들의 현지 생산 공장이 다수 진출·운영 중인 상황으로 미·중과의 관계가 밀접
 - ※ 전 세계 팹리스 업체 시장 점유율('21.3분기) : (1위) 미국 퀄컴, 22.9% (2위) 미국 엔비디아, 19.6% (3위) 미국 브로드컴, 16.1%
 - ※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22.1분기) : (1위) 대만 TSMC, 53.6% (2위) 삼성전자 16.3% (3위) 대만 UMC 6.9%
 - 이에 韓 정부는 다각적 분석을 통해 8월 초 대략적인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며 한편으로는 칩4 동맹이 반중 협의체로 인지되는 점에 대한 부담감도 표명

표 2-2 韓 칩4 가입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요 문제

구분	주요 내용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국의 압박 및 보복 가능성이 존재해 국내 업체의 현지 공장 정상 가동에 대한 난항이 우려 • (일본) '19.7월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진행한 바가 존재해 우려 • (대만)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국가로 기술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감 정보 유출 등이 우려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공급망에서 연쇄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해 우려 • 美 팹리스 업체들이 한국 위탁생산 물량에 대한 감산·배제 가능성이 존재해 수출 난항이 우려 • 대만(TSMC 등)과 미국과의 밀착 가능성도 우려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표 2-3 국내 업체의 中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현황

업체명	위치	내용
SAMSUNG	시안	• 낸드플래시 생산시설(동 사의 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물량의 40%를 담당) • 테스트·패키징
	쑤저우	
SK hynix	우시	• D램 생산시설(동 사의 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 • 낸드플래시 생산시설(구 인텔)
	다롄	

자료 : 매일경제, 7.21. 인용 / 언론 자료 정리

○ (참고) 한국과 중국(홍콩 포함)·북미·EU 간 수출 구도

- (전체) '18년 50% 이상을 차지했던 對중국(홍콩 포함) 정보통신방송기기 수출은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 '22.상반기 누적 기준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44.4%까지 하락하였으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반면 북미+EU는 증가 흐름
- (반도체) 중국은 여전히 국내 반도체 수출의 무려 60% 수준을 담당하는 주요 시장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21년 67.5%의 압도적 수출 비중을 차지
 - ※ 對중국(홍콩 포함)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 ('18) 66.9, ('19) 62.6, ('20) 60.5, ('21) 59.7, ('22.상반기 누적) 55.9
- 다만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년부터 對북미, EU 지역으로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10%대를 지속 상회하는 점에 눈길
- 반도체 공급 동맹 '칩4' 가입 여부에 따른 韓 공급 구도 및 수출 추이 변화에 대해 향후 귀추가 주목

<정보통신방송기기 및 메모리 반도체 수출>



자료 : KTSPI, IITP

□ 미·EU는 러시아의 에너지·금융 분야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확대하며 제재를 지속

- 美는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 미·러 갈등이 심화
 - '22.6.27~30일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러시아 수입원 축소를 위한 제도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에 합의
 - ※ 통상적으로 러시아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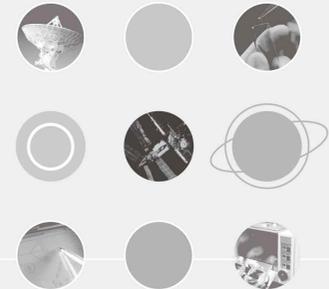
- 미국은 러시아의 원유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수입하지 않도록 담합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운송보험을 거부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22.12.22일 이내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예고
 - ※ 美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동맹국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을 요청. 한국은 7.19일 동참 의사를 전해 눈길
- 이에 러시아는 서방국이 제시하는 원유 가격상한제 가격이 석유 생산 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불가피할 경우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 경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최근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 분석도 제기
- EU가 승인한 7차 대러 제재는 7.21일 즉시 발효, 독일의 脫러시아산 행보도 눈길
 - '22.6월 러시아산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22년 말부터 아예 중단하는 6차 제재안을 통과한 데 이어 7.20일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7차)도 승인
 - ※ 화물선 보험업체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EU가 내년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보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해당 유조선은 무보험 운항이므로 국제 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될 예정
 - 해당 조치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자산 동결, 러시아 개인 및 기관 추가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의 자산 유동성을 차단하여 경제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
 - 한편 독일은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에 따라 8.1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12.31일부터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 발표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최, 러·우 전쟁 여파로 합의문 채택은 불발

- 러·우 전쟁에 대한 각 국별 이견차로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으나 이외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
 - 7.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금융 안정 방안, 기후 변화 관련 지속 가능 금융, 인프라 투자, 디지털 자산 관련 각종 조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국의 협력 강화, 개방적인 농업 무역 촉진, 수출 제한 최소화 등에 합의
 - 다만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비판하며 가혹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이견을 고수
 -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각 국의 입장차로 G20 회의 공동성명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회의 내용을 요약한 의장 성명으로 대체돼 공개
 - ※ 한편 이번 G20 회의에서는 '22.4월 미국에서 개최된 재무장관 회의 때처럼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은 실시되지 않아 눈길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17,226	8.8	100.0	456,275	9.8	100.0	1,814,215	10.9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6	319,722	11.0	70.1	1,279,157	13.0	70.5
- 전자부품	2,301,413	12.4	44.1	195,079	10.3	42.8	790,606	13.6	43.6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7,053	29.9	3.7	64,338	28.6	3.5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34,282	12.8	7.5	136,776	13.3	7.5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8,468	20.4	1.9	34,039	25.0	1.9
- 정보통신응용기기	728,536	9.2	14.0	64,840	6.9	14.2	253,397	6.6	14.0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4,815	4.5	16.2	72,624	1.7	15.9	284,448	0.9	15.7
- 통신서비스	374,162	0.9	7.2	31,513	2.1	6.9	124,730	0.3	6.9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6	1.9	8,483	2.3	1.9	33,572	0.5	1.9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1.7	4.8	21,053	1.3	4.6	83,731	-0.1	4.6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390	-0.4	0.4	1,977	11.7	0.4	7,426	4.8	0.4
- 방송서비스	202,591	3.2	3.9	17,715	1.9	3.9	70,698	3.3	3.9
· 지상파방송서비스	37,103	8.7	0.7	3,177	-2.1	0.7	12,779	8.1	0.7
· 유료방송서비스	71,716	3.6	1.4	6,276	4.5	1.4	25,390	7.3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3,220	0.8	1.8	8,225	1.8	1.8	32,360	-1.3	1.8
· 기타방송서비스	554	1.0	0.0	37	-16.1	0.0	170	-4.6	0.0
- 정보서비스	268,062	11.1	5.1	23,396	1.1	5.1	89,020	0.0	4.9
· 정보인프라서비스	42,542	8.7	0.8	3,843	13.4	0.8	15,227	13.1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5,520	11.6	4.3	19,554	-1.1	4.3	73,793	-2.3	4.1
○ 소프트웨어	688,346	3.6	13.2	63,928	13.9	14.0	250,610	12.6	13.8
- 패키지 소프트웨어	136,410	3.9	2.6	12,598	9.3	2.8	49,232	14.0	2.7
- 게임 소프트웨어	142,195	0.8	2.7	12,872	13.0	2.8	51,334	9.1	2.8
- IT 서비스	409,741	4.5	7.9	38,459	15.7	8.4	150,043	13.4	8.3

자료 : KEA, KAIT, 2022.5.

2 2022년 6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1/4분기	1,464.0	489.5	13.6	1,366.0	309.2	19.0	98.0	180.3
2/4분기	1,567.3	540.8	29.6	1,492.3	319.0	19.1	75.0	221.8
3/4분기	1,645.4	610.4	27.7	1,568.9	340.8	19.1	76.5	269.6
4/4분기	1,767.3	635.4	24.9	1,723.7	381.2	22.0	43.6	254.2
상반기	3,031.3	1,030.3	21.5	2,858.3	628.2	19.1	173.0	402.1
하반기	3,412.7	1,245.8	26.2	3,292.6	722.0	20.6	120.1	523.7
1월	480.1	162.8	21.5	444.6	107.8	22.0	35.5	55.0
2월	447.1	152.6	11.4	424.0	92.0	19.4	23.0	60.6
3월	536.9	174.1	8.9	497.4	109.5	15.9	39.5	64.6
4월	512.3	170.5	32.5	508.9	107.9	21.7	3.3	62.6
5월	507.3	177.3	27.4	479.1	105.2	17.9	28.1	72.1
6월	547.8	193.0	29.1	504.3	105.8	17.8	43.5	87.1
7월	554.6	194.8	30.1	536.8	113.2	14.9	17.9	81.5
8월	531.7	202.3	33.0	515.8	113.9	23.8	15.8	88.5
9월	559.1	213.3	21.1	516.4	113.7	18.9	42.8	99.6
10월	556.6	199.1	21.5	538.5	121.1	18.5	18.1	78.0
11월	603.3	214.9	30.0	573.6	127.7	23.1	29.7	87.2
12월	607.3	221.4	23.3	611.6	132.4	24.3	-4.3	89.0
2022년	3,503.4	1,225.5	18.9	3,606.4	743.7	18.4	-103.0	481.8
1/4분기	1,732.5	617.1	26.1	1,769.0	365.8	18.3	-36.5	251.4
2/4분기	1,771.0	608.4	12.5	1,837.4	377.9	18.5	-66.4	230.5
상반기	3,503.4	1,225.5	18.9	3,606.4	743.7	18.4	-103.0	481.8
1월	554.6	196.0	20.4	602.0	123.2	14.4	-47.5	72.8
2월	540.1	188.5	23.5	531.1	113.9	23.9	9.0	74.6
3월	637.8	232.6	33.6	635.9	128.6	17.5	1.9	104.0
4월	578.6	199.3	16.9	603.2	121.4	12.5	-24.6	78.0
5월	615.1	202.0	13.9	632.2	126.0	19.8	-17.1	75.9
6월	577.3	207.0	7.3	602.0	130.5	23.3	-24.7	76.5

자료 : IITP, KTSP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24.0	100.0	20,703	7.3	100.0	122,549	18.9	100.0
○ 전자부품	165,059	25.9	72.5	15,239	7.8	73.6	88,319	19.6	72.1
- 반도체	128,699	28.4	56.5	12,478	11.1	60.3	69,524	20.9	56.7
· 메모리반도체	82,431	28.9	36.2	7,789	3.2	37.6	42,459	15.7	34.6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	17.5	4,178	33.3	20.2	23,938	36.1	19.5
- 디스플레이	24,657	19.0	10.8	1,785	-8.4	8.6	12,708	17.9	10.4
- 전자관	5	17.1	0.0	1	125.1	0.0	3	51.5	0.0
- 수동부품	2,344	15.4	1.0	183	-9.2	0.9	1,107	-5.7	0.9
PCB	5,790	15.1	2.5	504	9.3	2.4	3,131	18.1	2.6
- 접속부품	3,338	17.0	1.5	272	-3.3	1.3	1,731	5.6	1.4
- 기타전자부품	160	21.0	0.1	11	-14.0	0.1	77	0.3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25.0	7.6	1,690	13.6	8.2	10,130	38.6	8.3
- 컴퓨터	2,293	11.3	1.0	92	-51.4	0.4	519	-50.3	0.4
- 주변기기	15,093	27.4	6.6	1,598	23.0	7.7	9,612	53.4	7.8
· 디스플레이장치	745	28.5	0.3	104	72.4	0.5	671	117.0	0.5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14.4	0.2	38	-8.1	0.2	231	4.1	0.2
· 보조기억장치	12,954	28.2	5.7	1,348	21.0	6.5	8,152	55.5	6.7
○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22.4	7.4	1,190	8.4	5.7	8,724	12.3	7.1
- 통신기기	16,171	22.4	7.1	1,104	5.2	5.3	8,038	7.3	6.6
· 유선통신기기	957	16.0	0.4	91	6.2	0.4	607	39.6	0.5
· 무선통신기기	15,214	22.9	6.7	1,013	5.1	4.9	7,430	5.3	6.1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24.6	6.1	878	1.4	4.2	6,661	3.1	5.4
- 방송용 장비	571	21.6	0.3	86	77.3	0.4	686	149.2	0.6
○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9.9	1.0	185	-10.9	0.9	1,151	-2.7	0.9
- 영상기기	1,528	-14.4	0.7	111	-16.0	0.5	697	-11.4	0.6
· TV	1,065	-27.7	0.5	64	-32.5	0.3	441	-21.9	0.4
· LCD TV	34	-82.9	0.0	4	22.9	0.0	28	92.8	0.0
· TV 부분품	1,014	-13.0	0.4	59	-35.4	0.3	404	-25.4	0.3
· 셋탑박스	22	66.0	0.0	2	-36.9	0.0	10	0.7	0.0
- 음향기기	802	-0.1	0.4	71	-1.7	0.3	435	15.3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6.4	0.0	3	-7.4	0.0	19	3.1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17.3	11.4	2,398	1.3	11.6	14,225	10.2	11.6
-가정용전기기기	5,709	36.0	2.5	456	-4.9	2.2	3,357	26.3	2.7
-사무용기기	427	25.0	0.2	32	-35.6	0.2	160	-24.4	0.1
-의료용기기	2,564	25.6	1.1	255	11.7	1.2	1,384	14.2	1.1
-전기 장비	11,920	14.2	5.2	1,171	7.2	5.7	6,595	11.6	5.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15.2	3.9	805	-2.2	3.9	4,766	9.2	3.9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35,024	19.9	100.0	13,049	23.3	100.0	74,367	18.4	100.0
○ 전자부품	74,610	21.0	55.3	7,943	33.8	60.9	43,246	28.6	58.2
- 반도체	61,719	21.9	45.7	6,693	38.5	51.3	35,822	29.8	48.2
· 메모리반도체	21,579	14.2	16.0	2,493	51.2	19.1	13,247	47.8	17.8
· 시스템반도체	31,479	27.7	23.3	3,385	34.9	25.9	18,135	24.3	24.4
- 디스플레이	3,869	1.3	2.9	447	32.3	3.4	2,699	54.7	3.6
- 전자관	64	14.5	0.0	4	5.1	0.0	34	5.4	0.0
- 수동부품	2,800	25.6	2.1	226	-12.2	1.7	1,346	-2.0	1.8
PCB	3,101	31.2	2.3	308	29.0	2.4	1,756	30.8	2.4
- 접속부품	2,518	16.1	1.9	203	-7.0	1.6	1,224	-5.4	1.6
- 기타전자부품	436	52.0	0.3	54	34.9	0.4	320	61.4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49	24.8	12.4	1,320	3.5	10.1	9,206	9.3	12.4
- 컴퓨터	10,233	28.7	7.6	821	10.7	6.3	5,617	6.1	7.6
- 주변기기	6,516	19.1	4.8	499	-6.5	3.8	3,588	14.7	4.8
· 디스플레이장치	1,090	24.4	0.8	121	37.9	0.9	751	38.9	1.0
· 프린터(부분품포함)	963	11.1	0.7	82	13.7	0.6	497	-0.4	0.7
· 보조기억장치	3,243	21.5	2.4	197	-29.6	1.5	1,687	12.4	2.3
○ 통신 및 방송기기	16,362	12.8	12.1	1,147	17.9	8.8	7,266	-3.1	9.8
- 통신기기	15,815	12.7	11.7	1,076	15.6	8.2	6,847	-5.3	9.2
· 유선통신기기	2,131	11.2	1.6	154	-16.8	1.2	886	-15.9	1.2
· 무선통신기기	13,684	12.9	10.1	922	23.7	7.1	5,961	-3.5	8.0
휴대폰(부분품 포함)	10,176	12.2	7.5	580	9.7	4.4	4,043	-10.4	5.4
- 방송용 장비	547	14.8	0.4	72	67.8	0.6	419	57.3	0.6
○ 영상 및 음향기기	3,915	15.9	2.9	324	5.1	2.5	1,880	-6.2	2.5
- 영상기기	2,464	14.9	1.8	189	3.4	1.5	1,168	-8.3	1.6
· TV	1,891	18.2	1.4	116	-17.7	0.9	836	-17.7	1.1
· LCD TV	929	40.0	0.7	53	-30.9	0.4	432	-12.2	0.6
· TV 부분품	575	-29.7	0.4	38	-5.6	0.3	249	-28.4	0.3
· 셋탑박스	214	11.0	0.2	31	140.2	0.2	107	24.0	0.1
- 음향기기	1,099	9.5	0.8	101	7.7	0.8	556	0.4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52.8	0.3	34	7.4	0.3	157	-11.3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388	18.9	17.3	2,315	10.7	17.7	12,768	13.4	17.2
-가정용전기기기	4,560	15.6	3.4	435	-3.5	3.3	2,491	6.2	3.4
-사무용기기	33	2.5	0.0	3	27.4	0.0	18	2.5	0.0
-의료용기기	2,287	4.8	1.7	189	-2.6	1.4	1,170	6.5	1.6
-전기 장비	8,256	39.8	6.1	924	33.3	7.1	4,957	32.9	6.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191	66.1	3.1	564	70.3	4.3	2,833	73.5	3.8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6월 당월			6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135,024	92,584	20,703	13,049	7,654	48,183
○ 전자부품	165,059	74,610	90,448	15,239	7,943	7,297	45,073
- 반도체	128,699	61,719	66,980	12,478	6,693	5,785	33,702
· 메모리반도체	82,431	21,579	60,852	7,789	2,493	2,493	29,212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79	8,273	4,178	3,385	792	5,803
- 디스플레이	24,657	3,869	20,788	1,785	447	1,338	10,009
- 전자관	5	64	-59	1	4	-4	-31
- 수동부품	2,344	2,800	-456	183	226	-43	-238
PCB	5,790	3,101	2,689	504	308	197	1,375
- 접속부품	3,338	2,518	820	272	203	69	507
- 기타전자부품	160	436	-276	11	54	-42	-24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16,749	637	1,690	1,320	371	925
- 컴퓨터	2,293	10,233	-7,940	92	821	-729	-5,099
- 주변기기	15,093	6,516	8,577	1,598	499	1,100	6,023
· 디스플레이장치	745	1,090	-345	104	121	-18	-80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963	-548	38	82	-44	-266
· 보조기억장치	12,954	3,243	9,711	1,348	197	1,152	6,465
○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16,362	380	1,190	1,147	43	1,458
- 통신기기	16,171	15,815	356	1,104	1,076	28	1,190
· 유선통신기기	957	2,131	-1,174	91	154	-63	-279
· 무선통신기기	15,214	13,684	1,530	1,013	922	91	1,469
·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10,176	3,818	878	580	298	2,619
- 방송용 장비	571	547	24	86	72	15	268
○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3,915	-1,548	185	324	-139	-729
- 영상기기	1,528	2,464	-936	111	189	-78	-471
· TV	1,065	1,891	-826	64	116	-52	-395
· LCD TV	34	929	-895	4	53	-49	-404
· TV 부분품	1,014	575	439	59	38	21	154
· 셋탑박스	22	214	-192	2	31	-29	-96
- 음향기기	802	1,099	-297	71	101	-30	-1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353	-315	3	34	-31	-13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23,388	2,667	2,398	2,315	83	1,457
- 가정용전기기기	5,709	4,560	1,149	456	435	20	865
- 사무용기기	427	33	394	32	3	29	143
- 의료용기기	2,564	2,287	277	255	189	67	214
- 전기 장비	11,920	8,256	3,664	1,171	924	247	1,63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4,191	4,583	805	564	241	1,933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27,608	24.0	100.0	20,703	7.3	100.0	122,549	18.9	100.0
○ 아시아	176,605	24.7	77.6	15,599	6.0	75.3	94,097	19.1	76.8
- 중국(홍콩 포함)	107,525	23.8	47.2	9,079	-2.6	43.9	54,460	11.9	44.4
- 일본	4,314	10.7	1.9	408	5.6	2.0	2,328	11.6	1.9
- ASEAN	49,033	21.0	21.5	4,422	17.6	21.4	27,190	28.2	22.2
· 싱가포르	4,775	47.8	2.1	632	64.0	3.1	3,413	60.9	2.8
· 인니	893	14.7	0.4	95	39.4	0.5	570	30.8	0.5
· 말련	2,507	19.3	1.1	253	23.9	1.2	1,460	27.8	1.2
· 태국	1,354	19.8	0.6	131	28.7	0.6	799	21.9	0.7
· 베트남	35,133	18.0	15.4	2,805	5.1	13.6	18,470	22.7	15.1
- 대만	12,671	59.6	5.6	1,350	30.1	6.5	7,780	37.4	6.3
- 인도	2,781	25.2	1.2	299	62.8	1.4	2,138	72.0	1.7
○ 북미	28,776	26.4	12.6	3,013	14.8	14.6	15,892	21.4	13.0
- 미국	27,947	26.5	12.3	2,930	14.4	14.2	15,346	20.4	12.5
- 캐나다	714	21.2	0.3	73	39.1	0.4	485	66.9	0.4
○ 유럽	15,286	21.6	6.7	1,506	12.4	7.3	8,866	19.4	7.2
- 유럽연합	12,771	22.8	5.6	1,326	17.6	6.4	7,634	23.4	6.2
· 독일	3,522	21.9	1.5	330	7.4	1.6	1,852	6.8	1.5
· 프랑스	844	41.9	0.4	72	-22.5	0.3	498	26.7	0.4
· 이탈리아	469	43.0	0.2	64	67.0	0.3	325	36.6	0.3
- 영국	1,044	23.5	0.5	107	13.4	0.5	649	18.0	0.5
- 러시아	791	9.1	0.3	26	-54.7	0.1	266	-27.6	0.2
○ 중동	1,593	-5.2	0.7	130	-1.2	0.6	836	3.4	0.7
- 사우디	228	-4.0	0.1	28	37.7	0.1	141	30.9	0.1
- UAE	493	-13.4	0.2	40	9.7	0.2	240	-8.3	0.2
○ 중남미	4,304	13.1	1.9	375	1.8	1.8	2,331	6.7	1.9
- 브라질	1,457	0.5	0.6	120	-11.4	0.6	778	-3.1	0.6
- 멕시코	2,511	19.4	1.1	231	11.4	1.1	1,404	17.5	1.1
- 칠레	120	49.5	0.1	4	-65.2	0.0	40	-36.6	0.0
○ 대양주	721	1.4	0.3	50	-37.9	0.2	384	5.4	0.3
- 호주	618	-2.5	0.3	45	-36.3	0.2	336	5.7	0.3
○ 아프리카	309	10.1	0.1	28	-9.2	0.1	139	-16.2	0.1
※ 브릭스	82,033	22.0	36.0	7,180	5.8	34.7	44,905	22.2	36.6

자료 : IITP, KTSP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35,024	19.9	100.0	13,049	23.3	100.0	74,367	18.4	100.0
○ 아시아	112,900	21.6	83.6	11,360	32.1	87.1	62,869	20.6	84.5
- 중국(홍콩 포함)	59,700	23.8	44.2	4,721	5.2	36.2	31,570	18.1	42.5
- 일 본	11,978	14.9	8.9	1,064	17.8	8.2	6,074	8.9	8.2
- ASEAN	23,339	13.5	17.3	1,898	5.7	14.5	12,723	11.4	17.1
· 싱가포르	4,079	3.5	3.0	358	4.5	2.7	2,052	3.9	2.8
· 인 니	925	94.8	0.7	60	3.7	0.5	394	-9.4	0.5
· 말 련	3,601	9.9	2.7	321	0.9	2.5	1,919	8.0	2.6
· 태 국	2,007	29.9	1.5	193	0.3	1.5	1,096	7.5	1.5
· 베트남	11,177	14.7	8.3	836	11.4	6.4	6,438	17.4	8.7
- 대 만	17,770	31.6	13.2	1,975	41.6	15.1	10,744	29.0	14.4
- 인 도	105	31.8	0.1	9	-44.4	0.1	58	12.1	0.1
○ 북미	9,087	8.6	6.7	775	-1.0	5.9	4,432	-3.5	6.0
- 미 국	8,720	8.5	6.5	738	-1.6	5.7	4,224	-4.4	5.7
- 캐나다	246	4.3	0.2	26	15.5	0.2	139	22.5	0.2
○ 유럽	7,925	12.8	5.9	717	-1.8	5.5	4,174	11.0	5.6
- 유럽연합	6,880	12.9	5.1	628	-0.4	4.8	3,661	12.5	4.9
· 독 일	3,283	11.4	2.4	279	-10.6	2.1	1,742	9.5	2.3
· 프랑스	929	24.0	0.7	120	82.4	0.9	544	48.2	0.7
· 이탈리아	356	1.4	0.3	28	-21.8	0.2	171	-10.9	0.2
- 영 국	562	9.3	0.4	50	-16.2	0.4	268	0.2	0.4
- 러시아	25	18.0	0.0	1	-50.7	0.0	9	-36.0	0.0
○ 중동	655	18.6	0.5	102	101.2	0.8	381	-1.3	0.5
- 사우디	2	53.2	0.0	0	-84.2	0.0	0	-75.2	0.0
- UAE	43	-41.5	0.0	0	-91.7	0.0	4	-84.4	0.0
○ 중남미	985	10.7	0.7	84	23.9	0.6	467	-0.4	0.6
- 브라질	16	42.8	0.0	0	-80.1	0.0	4	-68.2	0.0
- 멕시코	965	11.2	0.7	83	27.1	0.6	461	1.5	0.6
- 칠 레	1	-25.0	0.0	0	-92.0	0.0	1	43.9	0.0
○ 대양주	115	26.1	0.1	9	-12.3	0.1	48	-11.5	0.1
- 호 주	79	28.4	0.1	7	22.1	0.1	38	11.2	0.1
○ 아프리카	18	-66.0	0.0	2	-17.2	0.0	9	-24.1	0.0
※ 브릭스	58,620	23.7	43.4	4,694	5.9	36.0	31,104	17.9	41.8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6월 당월			6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7,608	135,024	92,584	20,703	13,049	7,654	48,183
○ 아시아	176,605	112,900	63,705	15,599	11,360	4,239	31,228
- 중국(홍콩 포함)	107,525	59,700	47,825	9,079	4,721	4,358	22,890
- 일 본	4,314	11,978	-7,664	408	1,064	-656	-3,746
- ASEAN	49,033	23,339	25,694	4,422	1,898	2,524	14,468
· 싱가포르	4,775	4,079	696	632	358	273	1,361
· 인 니	893	925	-33	95	60	35	176
· 말 련	2,507	3,601	-1,094	253	321	-68	-459
· 태 국	1,354	2,007	-653	131	193	-62	-297
· 베트남	35,133	11,177	23,956	2,805	836	1,969	12,032
- 대 만	12,671	17,770	-5,099	1,350	1,975	-625	-2,965
- 인 도	2,781	105	2,676	299	9	291	2,080
○ 북미	28,776	9,087	19,689	3,013	775	2,239	11,461
- 미 국	27,947	8,720	19,228	2,930	738	2,192	11,122
- 캐나다	714	246	468	73	26	47	346
○ 유럽	15,286	7,925	7,360	1,506	717	789	4,692
- 유럽연합	12,771	6,880	5,891	1,326	628	698	3,973
· 독 일	3,522	3,283	238	330	279	51	110
· 프랑스	844	929	-85	72	120	-49	-46
· 이탈리아	469	356	113	64	28	36	155
- 영 국	1,044	562	482	107	50	57	381
- 러시아	791	25	766	26	1	25	257
○ 중동	1,593	655	939	130	102	27	455
- 사우디	228	2	226	28	0	28	141
- UAE	493	43	450	40	0	40	237
○ 중남미	4,304	985	3,320	375	84	291	1,865
- 브라질	1,457	16	1,441	120	0	119	774
- 멕시코	2,511	965	1,546	231	83	148	943
- 칠 레	120	1	119	4	0	4	40
○ 대양주	721	115	607	50	9	40	336
- 호 주	618	79	538	45	7	37	298
○ 아프리카	309	18	291	28	2	26	130
※ 브릭스	82,033	58,620	23,413	7,180	4,694	2,486	13,801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57	23.5	100.0	933	-1.2	100.0	4,897	6.3	100.0
○전자부품	3,468	32.9	27.6	301	14.2	32.2	1,418	13.9	29.0
- 반도체	2,463	31.2	19.6	230	24.6	24.7	1,077	22.9	22.0
- 디스플레이 패널	327	33.9	2.6	8	-68.3	0.9	66	-47.7	1.3
- 전자관	1	39.3	0.0	0	-21.3	0.0	0	-18.3	0.0
- 수동부품	173	49.9	1.4	16	28.0	1.7	63	14.7	1.3
- PCB	209	38.1	1.7	18	11.4	1.9	86	12.0	1.7
- 접속부품	258	31.1	2.1	23	9.8	2.5	104	6.6	2.1
- 기타 전자부품	36	50.6	0.3	5	58.7	0.5	21	83.0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37	20.4	19.4	189	5.6	20.3	1,049	15.4	21.4
- 컴퓨터	1,681	21.4	13.4	111	-8.2	11.9	639	2.3	13.0
- 주변기기	755	18.2	6.0	79	34.1	8.4	411	43.9	8.4
· 디스플레이장치	216	33.2	1.7	18	22.1	2.0	102	36.4	2.1
· 프린터(부품포함)	142	10.2	1.1	13	16.8	1.3	56	0.1	1.2
· 보조기억장치	184	6.2	1.5	10	-41.5	1.0	55	-25.7	1.1
· 저장 매체	34	8.3	0.3	24	847.7	2.6	125	873.6	2.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80	25.2	1.4	14	2.9	1.5	72	7.5	1.5
○통신 및 방송기기	2,751	15.6	21.9	185	-2.5	19.8	943	-7.5	19.3
- 통신기기	2,611	15.3	20.8	184	3.0	19.7	939	-2.7	19.2
· 유선통신기기	538	7.9	4.3	38	0.6	4.1	195	3.0	4.0
· 무선통신기기	2,073	17.4	16.5	116	-17.8	12.4	597	-23.0	12.2
- 방송국용 기기	132	22.1	1.1	9	-13.5	1.0	41	-19.4	0.8
○영상 및 음향기기	836	21.4	6.7	56	-13.4	6.0	309	-1.5	6.3
- 영상기기	402	19.2	3.2	26	-12.5	2.8	129	-14.1	2.6
- 음향기기	269	14.7	2.1	22	6.0	2.4	99	-4.7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5	41.5	1.3	0	-100.0	0.0	44	-26.9	0.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065	24.5	24.4	202	-18.3	21.7	1,177	5.1	24.0
- 가정용 기기	1,182	22.5	9.4	97	-2.7	10.4	460	2.4	9.4
- 사무용 기기	49	23.1	0.4	5	38.8	0.5	22	27.0	0.4
- 의료용 기기	182	12.5	1.5	0	-100.0	0.0	54	-21.8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10.5	2.1	2	-92.8	0.2	77	-25.8	1.6
- 전기 장비	1,384	31.6	11.0	98	-8.8	10.5	560	16.3	11.4
· 건전지 및 축전지	362	50.0	2.9	48	76.1	5.1	202	81.9	4.1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8,213	20.9	100.0	545	-15.0	100.0	3,104	0.8	100.0
○전자부품	5,857	22.7	71.3	438	-3.8	80.3	2,364	8.6	76.1
- 반도체	4,977	24.4	60.6	374	-2.4	68.6	1,994	8.9	64.2
- 디스플레이 패널	314	6.1	3.8	22	-16.4	4.1	163	24.8	5.3
- 전자관	2	18.3	0.0	0	-21.4	0.0	1	-17.9	0.0
- 수동부품	223	24.7	2.7	17	-12.9	3.1	80	-3.0	2.6
- PCB	123	13.3	1.5	8	-1.6	1.5	45	2.7	1.5
- 접속부품	212	17.2	2.6	16	-5.8	2.9	79	-7.9	2.5
- 기타 전자부품	5	11.1	0.1	0	4.1	0.1	2	16.1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1	17.8	6.5	41	-15.4	7.6	225	6.8	7.2
- 컴퓨터	43	49.5	0.5	3	-22.5	0.6	17	3.4	0.6
- 주변기기	488	15.7	5.9	38	-14.8	7.0	207	7.1	6.7
· 디스플레이장치	5	-34.3	0.1	0	-32.4	0.1	1	-44.3	0.0
· 프린터(부품포함)	63	12.3	0.8	4	-14.8	0.8	22	-16.0	0.7
· 보조기억장치	292	13.9	3.6	20	-31.1	3.7	106	-9.8	3.4
· 저장 매체	48	1.3	0.6	8	99.8	1.5	48	148.9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47.5	1.0	5	-14.3	0.9	30	7.7	1.0
○통신 및 방송기기	635	24.6	7.7	19	-59.3	3.4	104	-56.1	3.4
- 통신기기	575	28.5	7.0	18	-54.3	3.4	104	-50.9	3.3
· 유선통신기기	93	34.6	1.1	8	15.2	1.4	35	4.1	1.1
· 무선통신기기	482	27.4	5.9	2	-93.4	0.4	22	-87.9	0.7
- 방송국용 기기	27	8.3	0.3	2	-13.5	0.4	10	-10.6	0.3
○영상 및 음향기기	233	18.5	2.8	17	-1.6	3.1	97	16.4	3.1
- 영상기기	186	25.6	2.3	11	-19.0	2.0	67	1.6	2.2
- 음향기기	38	-10.4	0.5	4	33.5	0.8	18	24.3	0.6
- 기타 영상음향기기	8	52.6	0.1	0	-100.0	0.0	2	-11.1	0.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58	10.8	11.7	31	-59.2	5.6	315	-15.2	10.1
- 가정용 기기	218	12.3	2.7	17	-3.5	3.1	81	-5.8	2.6
- 사무용 기기	4	-2.7	0.1	0	-42.3	0.0	1	-27.8	0.0
- 의료용 기기	136	20.5	1.7	0	-100.0	0.0	40	-25.6	1.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94	8.2	4.8	0	-99.7	0.0	107	-29.7	3.5
- 전기 장비	205	8.8	2.5	13	-15.9	2.4	74	-3.6	2.4
· 건전지 및 축전지	74	4.2	0.9	5	-13.0	0.9	26	-3.5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847	12.4	100.0	242	3.0	100.0	1,221	6.8	100.0
○전자부품	1,013	19.3	35.6	86	1.0	35.6	433	9.4	35.4
- 반도체	776	20.7	27.2	64	-2.8	26.5	323	7.8	26.5
- 디스플레이 패널	35	12.4	1.2	3	6.7	1.2	15	5.6	1.2
- 전자관	3	7.1	0.1	0	-13.0	0.1	1	0.5	0.1
- 수동부품	38	21.3	1.3	3	13.1	1.4	17	14.9	1.4
- PCB	12	-2.2	0.4	1	33.2	0.6	6	11.6	0.5
- 접속부품	146	16.5	5.1	14	15.4	5.7	69	16.5	5.6
- 기타 전자부품	2	7.0	0.1	0	14.7	0.1	1	39.6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0	9.2	13.7	30	-0.5	12.5	164	2.8	13.4
- 컴퓨터	167	9.7	5.9	13	4.9	5.5	70	5.0	5.7
- 주변기기	222	8.9	7.8	17	-4.3	7.1	94	1.2	7.7
· 디스플레이장치	15	-0.5	0.5	1	15.2	0.6	8	19.6	0.6
· 프린터(부품포함)	35	3.9	1.2	3	-6.4	1.2	15	-2.5	1.2
· 보조기억장치	52	1.8	1.8	3	-19.8	1.3	19	-10.9	1.6
· 저장 매체	72	18.5	2.5	6	1.4	2.4	32	5.0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9	10.7	1.7	4	-2.3	1.7	21	5.6	1.7
○통신 및 방송기기	388	12.2	13.6	31	-0.4	12.6	156	-1.7	12.8
- 통신기기	347	11.9	12.2	30	7.9	12.2	151	6.5	12.4
· 유선통신기기	169	4.9	5.9	15	8.3	6.1	73	5.4	6.0
· 무선통신기기	178	19.4	6.2	13	-3.9	5.5	70	-3.4	5.8
- 방송국용 기기	28	15.9	1.0	2	5.1	1.0	11	3.0	0.9
○영상 및 음향기기	85	1.3	3.0	8	20.7	3.4	42	24.7	3.4
- 영상기기	33	-1.7	1.2	3	-4.2	1.1	13	-0.8	1.1
- 음향기기	36	-1.6	1.3	3	7.7	1.3	16	7.3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	16.2	0.6	1	-7.5	0.4	6	7.4	0.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71	8.2	34.1	87	6.1	35.9	427	7.6	34.9
- 가정용 기기	169	9.2	6.0	14	2.2	5.9	70	2.4	5.7
- 사무용 기기	9	8.7	0.3	1	1.8	0.4	4	10.3	0.3
- 의료용 기기	278	6.1	9.8	25	1.7	10.2	121	5.5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7.3	10.4	24	-0.8	9.9	120	-1.3	9.8
- 전기 장비	217	11.6	7.6	21	13.0	8.6	101	14.1	8.3
· 건전지 및 축전지	52	5.3	1.8	5	1.9	1.9	23	5.5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323	19.8	100.0	575	15.7	100.0	2,775	16.4	100.0
○전자부품	1,110	24.2	17.6	111	18.5	19.3	505	19.3	18.2
- 반도체	860	23.7	13.6	87	18.2	15.1	392	20.5	14.1
- 디스플레이 패널	36	18.2	0.6	3	-16.2	0.4	12	-19.9	0.4
- 전자관	3	7.2	0.0	0	14.9	0.0	1	1.7	0.0
- 수동부품	42	39.5	0.7	5	41.0	0.8	22	38.0	0.8
- PCB	23	34.0	0.4	2	19.6	0.4	11	22.8	0.4
- 접속부품	139	23.0	2.2	14	20.9	2.4	64	15.8	2.3
- 기타 전자부품	7	44.2	0.1	1	63.9	0.2	4	44.7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70	14.1	24.8	129	5.8	22.4	656	11.1	23.6
- 컴퓨터	983	11.8	15.5	74	-0.9	12.8	387	3.7	13.9
- 주변기기	587	18.0	9.3	55	16.4	9.6	269	23.8	9.7
· 디스플레이장치	101	30.0	1.6	10	34.9	1.8	53	42.2	1.9
· 프린터(부품포함)	140	20.1	2.2	13	6.1	2.2	61	7.4	2.2
· 보조기억장치	104	21.6	1.6	9	-1.5	1.5	44	16.3	1.6
· 저장 매체	162	11.6	2.6	15	22.2	2.7	75	34.8	2.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10.4	1.3	8	27.8	1.4	36	20.8	1.3
○통신 및 방송기기	1,265	16.2	20.0	105	14.4	18.3	523	15.2	18.8
- 통신기기	1,139	16.9	18.0	103	26.7	17.9	508	25.1	18.3
· 유선통신기기	443	9.6	7.0	40	14.8	7.0	195	16.6	7.0
· 무선통신기기	696	22.2	11.0	59	28.2	10.3	296	24.1	10.7
- 방송국용 기기	117	9.1	1.9	10	-3.2	1.7	50	10.4	1.8
○영상 및 음향기기	462	29.5	7.3	45	28.0	7.8	213	30.7	7.7
- 영상기기	187	16.0	3.0	12	-20.6	2.1	66	6.9	2.4
- 음향기기	164	34.0	2.6	14	17.2	2.5	71	10.5	2.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51.6	1.8	11	43.6	1.9	42	12.2	1.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16	22.6	30.3	186	19.9	32.3	878	16.8	31.6
- 가정용 기기	575	26.8	9.1	55	14.4	9.5	264	15.1	9.5
- 사무용 기기	28	15.2	0.4	3	26.1	0.5	14	29.7	0.5
- 의료용 기기	363	16.8	5.7	33	13.3	5.7	159	12.6	5.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0	11.9	4.7	25	3.1	4.3	121	1.8	4.4
- 전기 장비	651	28.5	10.3	69	32.7	11.9	312	24.0	11.3
· 건전지 및 축전지	161	53.9	2.5	21	63.4	3.7	89	45.3	3.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4,367	10.3	100.0	73,151	10.3	100.0
○전자부품	90,410	17.4	52.2	7,907	18.5	55.0	38,928	15.0	53.2
- 반도체	54,546	17.5	31.5	5,010	26.0	34.9	24,196	20.5	33.1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563	5.1	3.9	2,898	-0.3	4.0
- 전자관	287	10.0	0.2	26	18.9	0.2	124	10.4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1,012	12.1	7.0	4,917	11.6	6.7
- PCB	3,336	11.7	1.9	267	20.8	1.9	1,463	25.4	2.0
- 접속부품	12,240	20.5	7.1	951	0.8	6.6	4,923	0.8	6.7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78	12.2	0.5	407	39.1	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138	2.3	7.9	5,999	4.8	8.2
- 컴퓨터	1,040	4.7	0.6	76	-6.3	0.5	394	0.3	0.5
- 주변기기	13,184	15.1	7.6	1,062	2.9	7.4	5,605	5.1	7.7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64	-45.4	0.4	420	-26.6	0.6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793	7.6	5.5	4,017	5.0	5.5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0	-38.3	0.1	57	-26.4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141	20.6	1.0	859	37.6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54	21.1	0.4	251	8.5	0.3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268	-53.2	1.9	1,694	-42.4	2.3
- 통신기기	4,131	9.7	2.4	266	-16.6	1.8	1,684	3.4	2.3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81	-3.3	0.6	478	4.6	0.7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01	-57.2	0.7	683	-41.8	0.9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227	-0.1	1.6	1,207	1.3	1.7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609	54.9	4.2	3,274	62.2	4.5
- 영상기기	2,379	23.1	1.4	158	6.4	1.1	829	-3.4	1.1
- 음향기기	483	8.0	0.3	37	-4.0	0.3	194	-7.5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190	-8.2	1.3	1,054	10.8	1.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5,301	18.6	31.9	4,445	4.1	30.9	23,257	6.8	31.8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924	-1.9	6.4	4,656	-1.0	6.4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28	-21.5	0.2	146	-8.5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517	-6.9	3.6	2,775	5.4	3.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1,722	2.6	12.0	8,998	4.4	12.3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142	7.8	7.9	6,195	9.3	8.5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626	8.8	4.4	3,363	11.1	4.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17,142	29.0	100.0	80,560	15.5	100.0
○전자부품	47,567	30.0	27.4	5,673	57.8	33.1	24,404	41.5	30.3
- 반도체	37,305	31.7	21.5	4,563	66.2	26.6	19,580	46.3	24.3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192	33.8	1.1	743	14.2	0.9
- 전자관	127	6.0	0.1	4	-33.4	0.0	49	-15.6	0.1
- 수동부품	1,413	27.8	0.8	158	42.0	0.9	695	33.9	0.9
- PCB	1,620	24.4	0.9	164	4.2	1.0	782	24.2	1.0
- 접속부품	4,505	25.3	2.6	473	27.8	2.8	2,135	21.4	2.7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118	96.7	0.7	421	66.8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2,502	14.1	14.6	13,215	8.0	16.4
- 컴퓨터	16,259	-4.0	9.4	1,256	-3.0	7.3	7,227	-2.6	9.0
- 주변기기	11,795	7.7	6.8	1,246	38.6	7.3	5,988	24.3	7.4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144	-1.8	0.8	777	4.2	1.0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381	35.7	2.2	1,906	19.6	2.4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233	25.1	1.4	1,137	12.9	1.4
· 저장 매체	1,570	-0.5	0.9	289	142.7	1.7	1,205	100.3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199	19.8	1.2	964	10.5	1.2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3,167	21.0	18.5	15,263	-0.3	18.9
- 통신기기	33,546	16.5	19.4	3,129	30.1	18.3	15,133	8.1	18.8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741	9.5	4.3	3,787	13.9	4.7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2,222	28.6	13.0	10,522	-1.5	13.1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273	53.4	1.6	1,262	13.3	1.6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1,176	16.8	6.9	5,683	11.5	7.1
- 영상기기	6,839	8.3	3.9	483	-17.7	2.8	2,357	-19.3	2.9
- 음향기기	3,276	3.7	1.9	309	21.2	1.8	1,399	4.7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149	-9.7	0.9	795	-5.3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633	14.2	28.1	4,623	19.3	27.0	21,994	11.0	27.3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303	-4.2	7.6	6,033	-3.3	7.5
- 사무용 기기	726	0.0	0.4	67	24.3	0.4	320	-0.6	0.4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693	25.7	4.0	3,336	9.9	4.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873	19.4	5.1	4,254	4.1	5.3
- 전기 장비	15,280	18.0	8.8	1,631	38.3	9.5	7,763	26.4	9.6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332	60.2	1.9	1,499	39.4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34	25.7	100.0	245	18.5	100.0	968	22.9	100.0
○전자부품	2,053	27.9	78.0	197	21.4	80.4	774	26.4	80.0
- 반도체	1,812	28.4	68.8	179	24.7	73.1	700	30.2	72.3
- 디스플레이 패널	102	22.5	3.9	6	-23.3	2.5	27	-20.4	2.8
- 전자관	0	10.4	0.0	0	-48.5	0.0	0	-10.9	0.0
- 수동부품	42	30.5	1.6	3	-4.8	1.3	13	5.1	1.4
- PCB	66	17.4	2.5	6	21.2	2.4	23	19.8	2.4
- 접속부품	30	35.7	1.1	3	15.1	1.1	11	22.7	1.1
- 기타 전자부품	0	24.1	0.0	0	21.6	0.0	0	19.6	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6	14.0	9.0	20	9.0	8.1	78	9.8	8.1
- 컴퓨터	88	7.8	3.4	8	22.4	3.4	30	19.5	3.1
- 주변기기	148	18.0	5.6	12	1.0	4.7	48	4.5	5.0
· 디스플레이장치	7	10.3	0.3	1	31.5	0.2	2	3.8	0.2
· 프린터(부품포함)	3	24.0	0.1	0	32.4	0.1	1	19.7	0.1
· 보조기억장치	8	11.7	0.3	1	-6.2	0.3	2	0.4	0.3
· 저장 매체	106	15.1	4.0	7	-18.2	2.9	31	-9.5	3.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4	38.6	0.9	3	104.0	1.2	11	88.9	1.1
○통신 및 방송기기	127	16.0	4.8	12	24.9	4.9	46	26.8	4.8
- 통신기기	112	15.5	4.3	11	30.3	4.4	42	30.5	4.3
· 유선통신기기	78	17.3	3.0	7	28.1	3.0	29	25.9	2.9
· 무선통신기기	34	11.5	1.3	3	35.3	1.4	13	42.0	1.3
- 방송국용 기기	14	19.5	0.5	1	4.1	0.5	5	14.1	0.5
○영상 및 음향기기	83	31.6	3.1	5	-27.5	1.9	22	-15.6	2.3
- 영상기기	76	30.9	2.9	4	-31.5	1.7	20	-18.4	2.1
- 음향기기	6	42.8	0.2	1	25.8	0.2	2	21.3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6.3	0.0	0	45.5	0.0	0	18.8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34	22.6	5.1	12	11.9	4.7	47	14.0	4.8
- 가정용 기기	27	19.5	1.0	2	-1.6	0.8	9	6.9	0.9
- 사무용 기기	7	19.7	0.3	1	4.3	0.2	2	25.6	0.2
- 의료용 기기	7	14.0	0.3	1	7.0	0.2	2	15.7	0.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3	21.2	1.6	4	16.9	1.6	14	7.5	1.5
- 전기 장비	51	27.2	1.9	5	16.7	1.8	18	22.1	1.9
· 건전지 및 축전지	10	19.6	0.4	1	45.7	0.4	4	48.8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40	10.6	100.0	129	19.6	100.0	532	22.9	100.0
○전자부품	1,076	12.8	74.7	100	24.2	77.1	408	26.2	76.8
- 반도체	957	12.7	66.5	90	26.5	69.4	369	28.3	69.4
- 디스플레이 패널	19	-4.8	1.3	1	-29.3	0.9	5	-19.6	1.0
- 전자관	0	8.5	0.0	0	-26.3	0.0	0	16.7	0.0
- 수동부품	34	24.6	2.3	3	20.5	2.4	11	12.4	2.1
- PCB	36	16.3	2.5	3	22.0	2.6	14	25.8	2.5
- 접속부품	28	13.2	1.9	2	0.0	1.7	9	7.7	1.7
- 기타 전자부품	2	45.5	0.1	0	-11.3	0.1	1	6.0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6.8	6.4	7	18.5	5.8	31	20.8	5.9
- 컴퓨터	34	11.7	2.3	3	85.4	2.7	12	38.9	2.2
- 주변기기	59	4.2	4.1	4	-9.3	3.1	20	12.2	3.7
· 디스플레이장치	8	24.5	0.5	1	-9.4	0.4	2	11.3	0.5
· 프린터(부품포함)	4	-10.3	0.3	0	-25.9	0.2	1	-11.6	0.2
· 보조기억장치	12	8.2	0.8	1	-5.6	0.7	3	-18.3	0.6
· 저장 매체	27	-3.0	1.9	2	-4.8	1.4	10	23.5	1.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	18.1	0.5	0	-20.2	0.4	3	45.2	0.5
○통신 및 방송기기	84	1.4	5.8	6	1.2	4.8	27	3.3	5.0
- 통신기기	76	1.3	5.3	6	9.7	4.5	25	8.3	4.7
· 유선통신기기	24	4.5	1.7	2	10.4	1.7	8	7.4	1.6
· 무선통신기기	52	-0.1	3.6	4	9.3	2.8	17	8.8	3.2
- 방송국용 기기	5	4.4	0.3	0	-14.6	0.3	1	-1.7	0.3
○영상 및 음향기기	25	2.8	1.8	2	-12.1	1.3	8	8.3	1.6
- 영상기기	17	13.0	1.2	1	-20.6	0.8	5	1.9	1.0
- 음향기기	6	-3.4	0.4	1	9.8	0.4	2	10.9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28.6	0.2	0	-7.0	0.1	1	47.5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63	4.9	11.3	14	5.7	11.0	57	15.3	10.7
- 가정용 기기	40	9.0	2.8	4	11.6	2.9	14	15.5	2.7
- 사무용 기기	2	10.2	0.1	0	5.5	0.1	1	14.3	0.1
- 의료용 기기	15	-8.4	1.1	2	46.7	1.3	6	27.7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8	4.8	4.7	5	-7.8	4.2	23	9.7	4.3
- 전기 장비	37	7.1	2.6	3	10.0	2.6	14	20.5	2.5
· 건전지 및 축전지	12	11.7	0.8	1	15.3	0.9	5	29.0	0.9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직접판매 (수출)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p	2,449	-42.2	47,741	343.7	92	-56.2	
	직접구매 (수입)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p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분	반도체		전자포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6	100.9	147.8	183.6
2월	171.9	248.4	20.6	24.9	103.4	113.7	43.2	58.3	70.9	81.5	142.1	175.4
3월	195.4	281.9	21.0	24.6	119.4	131.4	50.6	68.3	75.5	90.6	170.4	208.9
4월	189.4	242.9	22.1	25.4	113.9	125.7	50.3	67.0	79.5	95.6	155.4	190.7
5월	207.5	264.9	23.4	26.6	112.8	124.4	54.1	71.6	74.3	89.6	146.8	180.9
6월	231.7	292.9	22.1	24.3	121.6	133.7	50.8	66.9	76.0	92.7	160.8	199.3
7월	227.7	273.4	25.3	27.8	132.6	146.2	51.7	66.2	83.4	101.8	151.1	180.8
8월	244.9	293.1	25.1	28.7	131.4	131.2	48.7	62.4	93.9	114.4	150.6	180.4
9월	256.8	308.7	23.6	28.9	128.2	128.3	56.7	72.5	104.8	130.7	167.6	200.6
10월	230.0	288.9	22.2	29.5	127.8	127.9	52.4	66.9	104.8	129.1	162.5	189.7
11월	251.3	316.8	22.7	31.1	127.2	108.0	56.7	72.4	112.3	132.5	168.8	198.0
12월	261.8	330.2	25.6	35.8	131.4	112.6	65.3	82.6	107.1	126.9	178.4	210.3
'22.1월	224.4	303.6	29.5	42.1	123.8	106.6	30.5	40.0	85.8	102.2	152.0	183.1
2월	219.0	295.1	27.1	39.3	118.7	102.1	26.0	34.3	81.3	99.3	151.4	180.8
3월	272.3	364.7	32.5	47.9	136.7	116.8	26.1	34.6	105.0	128.1	181.0	216.0
4월	229.5	309.6	27.8	42.0	128.7	111.1	30.8	40.2	87.0	105.8	153.7	179.1
5월	242.2	327.4	26.1	40.5	130.4	113.7	32.4	42.0	71.1	87.2	160.2	187.9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1.1월	148.5	207.8	33.7	31.1	119.9	131.6	206.2	214.2	162.3	190.7	148.8	142.8
2월	133.5	186.8	26.4	22.8	101.8	111.1	155.5	160.4	112.7	132.3	136.6	132.1
3월	151.8	212.5	30.5	25.1	130.6	141.6	198.7	206.4	134.4	157.8	162.6	156.9
4월	151.9	206.8	28.7	22.2	123.8	131.3	167.7	174.1	149.6	176.3	135.7	131.0
5월	153.0	210.6	26.4	20.1	132.9	137.5	169.4	177.6	120.6	142.2	136.6	131.8
6월	157.8	217.0	29.7	21.6	132.4	136.1	147.1	149.5	109.6	130.3	140.1	135.1
7월	175.1	235.0	25.5	18.4	134.7	139.5	154.5	156.4	130.3	159.3	139.2	134.5
8월	174.2	233.8	25.3	19.3	139.2	144.5	157.4	159.5	139.8	170.9	131.3	126.1
9월	178.5	239.6	29.7	24.9	138.3	143.6	160.0	161.5	130.9	162.4	126.3	120.9
10월	176.2	239.1	29.9	28.8	141.2	145.9	145.0	146.8	201.2	239.5	135.6	131.1
11월	197.0	269.8	37.0	37.4	155.7	160.7	159.5	161.8	169.9	202.2	146.8	142.3
12월	205.5	281.5	26.3	27.7	146.0	150.1	189.7	192.3	157.4	187.4	165.7	161.7
'22.1월	191.7	268.4	45.3	50.1	137.1	140.7	215.5	219.2	127.0	151.4	135.1	132.2
2월	178.7	250.3	39.8	46.5	120.9	123.9	186.0	189.2	119.9	142.7	130.8	126.6
3월	197.0	275.9	37.8	45.8	138.1	141.7	187.2	192.0	154.5	184.2	150.7	145.9
4월	185.9	261.4	37.0	46.8	138.7	142.6	167.0	172.3	137.1	167.4	150.3	146.2
5월	196.4	277.5	38.2	51.9	136.2	143.6	158.3	163.9	142.6	176.7	141.6	139.6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임진국
- ◎ 과제 책임자 : 허창희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반치호, 유영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1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